



한뼘 제41호



즐거로운



집콕생활



2019-2020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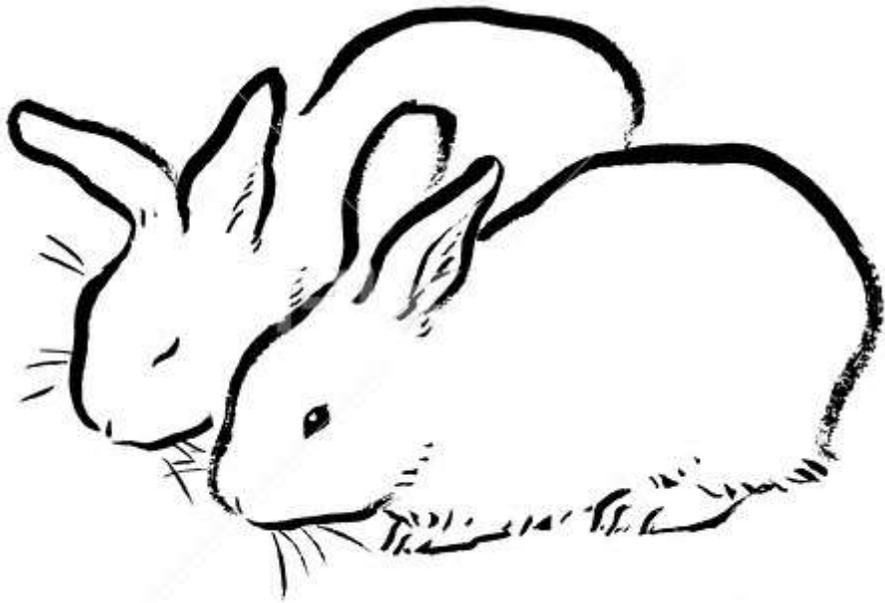
토끼반 (신은숙 선생님)	4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는 건이	5
다람쥐반 (박효정 선생님)	7
준이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8
사막 여우야 사랑해!	10
독수리반 (강정량 선생님)	13
서아의 실내에서 보내는 일상	14
내 동생 도훈의 신나는 집콕생활	16
강아지반 (한민경 선생님)	18
미소 천사, 전윤아	19
예진이의 자가 격리 기간 극복하기	21
독서에 빠진 동은이	23
오늘도 건강하게!	25
그리운 일상 생활	27
올리비아의 다양한 취미 활동	29
지원이의 새로운 취미 만들기	31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33
리아의 요즘 생활	35
지은의 모범적인 날들	37
지나의 더 바쁘게 살기	39
변화된 예선이의 생활	41
코끼리반 (구지현 선생님)	43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	44
기억에 남을 자가 격리	46
알렉스의 집콕생활	48
잠순이 앨리슨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50
자가 격리가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며	53
시아의 긍정적인 생활	55
교육적이지만 재미있게	57
책벌레 김청운의 정치생활	59
집중할수 있는 시간	61
호랑이반 (이민우 선생님)	63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64
밖이 그리운 지성이	66
주어진 시간 활용하기	68

진도반 (김레베카 선생님)	70
종현이의 몸짱 만들기	71
집콕생활로 갖게된 선재의 새로운 취미 생활은?	73
연결의 끈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Josh	75
방효신의 슬기로운 정치생활	77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은이의 요리시간	79
윤재의 하루 일과	81
돌고래반 (장혜정 선생님)	83
가족 여행을 기다리며	84
나의 집콕 생활을 통해 얻은 좋은 점	86
Joelle이 자가격리 기간동안 보내는 일반적인 하루	89
격리 기간중 Joanna의 일일 계획표	91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93
Jaclyn이 봉쇄 시간을 활용하는 법	97
댄싱퀸 수연	99
강인한 여장군 수진	101
다큐/포럼반 (윤기석 선생님)	104
스트레스 프리	105
신지은의 트로트 삼매경	107
이웃 친구 심영서의 성실한 집콕 일상	109
승현의 소중한 시트콤	111
뮤지션 서정환의 집콕생활	114
도웅이의 교육적이고 유익한 집콕생활	117
운유의 가족을 생각하는 생활	119
보조교사 (이유정 선생님)	121
집콕 생활을 기쁘게 생각하는 유찬이의 하루	122
태연이의 열공생활	124
유빈이의 슬록 기자생활	127
“요즘 어떻게 지내?”	129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유진이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131
자기계발 위해 힘쓰는 두원이	133
도현이의 즐거운 축구생활	135
야구를 좋아하는 은환이의 생활	136
인턴교사	139
박주원의 반복되는 생활	140
워라벨이 무엇이냐구요?	142
소중한 기억들을 만든 시간	144

요석남 이로운의 슬기로운 셰프생활

147

토끼반 (신은숙 선생님)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는 건이

Daniel's Wise Stay-At Home

건이는 올해 우리학교 킨더 클래스에 다니고 있는 5살 남자아이입니다. 항상 잘 웃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학교에 못 가서 많이 속상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친구도, 선생님도 볼 수 없어서 어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학교에서 내준 읽기와 쓰기 숙제를 하고, 엄마, 아빠, 형과 함께 가끔 요리도 하고, 과학 실험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머니의 날 카드도 만들고, 선생님께 감사 카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드를 받을 엄마와 선생님의 환한 미소가 건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건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형과 함께 춤을 추며 게임을 하고, 바깥에 나가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건이의 집콕 생활은 엄마, 아빠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덕분에 재밌는 활동들로 알차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건이의 즐거운 집콕 생활을 응원합니다.



글쓴이 박유빈



Daniel is 5 years old and is enrolled in our school's kindergarten class. He loves to smile and play with his friends. But he is sad that he can't go to school because he misses seeing his friends and teachers. Especially, he loves to play in the playground with his friends, but he is disappointed that he cannot go outside to meet with his friends. Although he loves to spend his time with his family, he can't wait to go back to school. In the morning, he usually does reading and writing homework and later in the day, he spends his day with his family by sometimes cooking or doing science experiments. The science experiments are helping him grow in both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become the greatest scientist in the future. This week, he made a



mother's day card and thank you card for his teacher. Daniel wanted to thank his mother for all the things that she has done for him and his teacher for teaching him well in school. Upon receiving the card, the smiles from both his mother and teacher will make Daniel really happy. Daniel's favorite activities include playing dancing games and playing outside with his brother. Thankfully, Daniel's life at home seems to be filled with fun activities with his parent's amazing plan. I would like to root and cheer for Daniel's stay-at-home life and I hope he continues his wise and fun stay-at-home life!

Interviewer Youbin Park

다람쥐반 (박효정 선생님)

준이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Christian's Wise Stay-at-home life

우리 학교 다람쥐 반에 다니는 6세 준이의 즐겁고, 바른 가정생활을 소개합니다.

준이는 요즘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이 속상합니다.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고, 맛있는 스낵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먹고 싶고, 무엇보다 학교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꼭 참고,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학교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만들기 숙제와 큰소리로 책 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실 때에는 동생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 정리도 한다고 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멋진 아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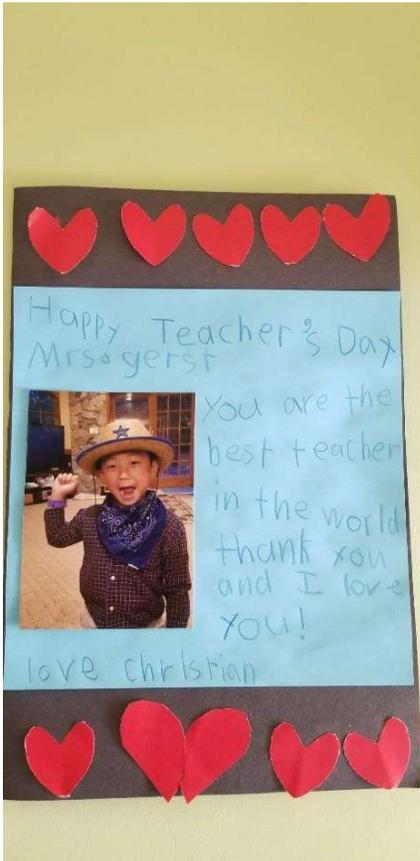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엄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매 년 받는 감사의 편지보다 올 해 더 감동적이었다고 준이의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기쁨을 전해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준이의 바람대로 코로나가 사라져서 지금은 텅 비어 있는 학교 놀이터가 신나게 뛰어 놀 아이들로 꽉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준이야, 파이팅!

글쓴이 박유진

I would like to showcase how Christian is spending his time at home with his family during the pandemic. Christian, who is 6 years old at KSSNJ, is disappointed right now because he cannot go to school. He would rather go to school, where he can learn and share snacks with his friends. Most importantly, he misses playing tag and hide-and-seek with his friends at the playground. He would love to go outside and make memorable experiences with his friends. Still he tries to spend his time well at home by learning through online, making projects for homework, and reading books out loud. For one of his projects, he made a card for Teacher's Appreciation Day. Also, while his mom is preparing meals, as an older brother, he plays with his



sister and brother. He usually plays with toys or goes outside to run around with his siblings. After they finish playing, he usually cleans up the toys for his siblings. He understands that he needs to be responsible for the mess he created while playing. Since Mother's Day is this Sunday, he read a self-made thank you letter to his mom. His mom said that this year was more memorable than the previous years because his beautiful card moved her heart. From this, we can all agree that Christian is a family-caring kid.

Just like Christian's wish, I hope the COVID-19 issue ends soon, so that Christian and his friends can fill the playground again with laughter.

Cheer up Christian!



Interviewer Youjin Park

사막 여우야 사랑해!

Fennec Fox

다섯 살 박민아는 미국학교에 다니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학교에 왔을 때, 너무 좋아서 매일 한국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한국어만 쓰다가 갑자기 영어로만 말하는 미국학교를 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재미있게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국학교에 가지못해 너무 속상합니다. 민아랑 한국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윤우입니다. 윤우는 장난꾸러기이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윤우를 요즘 만나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그래도 엄마랑 집에서 한글쓰기 공부를 하니까 좋습니다. 엄마는 민아가 천천히 쓰거나 잘못써도 혼내시지 않습니다. 민아는 오른손 보다는 왼손으로 글씨를 예쁘게 더 잘 씁니다. '가'부터 '하'까지 많이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 가사도 쓰고 있습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아빠랑 같이 교회에 갔다가 마이크를 써 보았습니다. 민아의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집에서 연습했는데, 교회에서 마이크를 대고 노래했더니 목소리가 예쁘고 크게 들려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빨리 커서 학교에서 하는 동요대회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민아는 사막여우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사막여우를 보고난 후부터 사막여우를 동물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막여우가 아플 때 약을 줘서 빨리 낫게 해 줘야 하거든요.

민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빨간 파스타입니다. 한국음식 중에서는 할머니가 만드신 파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차로 멀리 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 차를 타고 다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오른쪽 코에서 빨간 피가 나와서 조금 무서웠지만 엄마 아빠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재미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좋습니다.

글쓴이 윤도웅

Chloe Park, 5 years old, attended Korean school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she liked it so much that she wanted to go every day. Transitioning from only using Korean at home to speaking English at school was very difficult for Chloe. She is upset because

due to COVID, Korean school closed down.

Chloe's best friend in Korean school, Yoon-woo, is very silly and fun to be around; Chloe is



sad that she hasn't seen Yoon-woo in a while.

Still, she likes to study Korean writing at home with her mom. She does not get upset if Chloe writes slowly or writes it wrong. Chloe writes prettier with her left hand rather than her right. She practices writing a lot from '가' to '하', and also writes lyrics from the song, "참 좋은 말 (Very Good Words)"

Her dad installs a camera so that he can worship online at church. Last time, she went to church with her dad and used a microphone. Chloe liked hearing her own voice through the loudspeakers. She sang a song called,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You're Born to be Loved)". After practicing at home, she sang with a microphone at church; She heard her pretty and loud voice, and was so excited and

happy. She wants to enter the singing competition at school as soon as possible.
<https://youtu.be/Y5LvdZeN4tk> A song sung by Chloe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While Chloe was home, she also drew a lot of pictures; Chloe loves drawing fennec foxes. After watching desert foxes on YouTube, fennec foxes became her favorite animal. She wants to become a vet when she grows up later. When the fennec fox is sick, she wants to give him medicine to make it better.

Chloe's favorite food is her father's red pasta. Among Korean food, she likes the green onion Kimchi that her grandmother made. Her parents are busy with work, so there are times they go far. Last Saturday, Chloe was very tired because she stayed all day in her parents' car and had a nose bleed in the evening. She was a little scared by the red blood coming out of her right nostril, but she liked it because her parents wiped it clean and were kind to her.

Chloe lives with her parents at home without going to school, but she enjoys studying a lot and getting a lot of love from her parents.

Interviewer Joshua Yoon



독수리반 (강정랑 선생님)

서아의 실내에서 보내는 일상

Seoha's indoor daily life

우리학교 서아와 인터뷰를 했다. 이 팬데믹에 서아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다. 서아는 8살이고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다. 서아는 전과는 다른 일들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부와 숙제를 하는데 보내고 책을 읽고 TV를 본다. 시간이 많아서 전보다 더 많이 가족과도 보내고 있다. 새로운 책을 찾아서 그것들을 읽는 취미가 생겼는데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연과 관련된 나무, 선인장같은 것들을 그리는 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서아는 매우 제한하는 즉 쇼핑을 가거나 놀이터에서 바이러스 걱정없이 놀던 전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실망스럽다. 또한 여름휴가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야외 활동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것도 서아는 속상하다. 모든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어 한국도 못 가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만큼 재미 있지도 않고 더 스트레스를 서아는 받는다.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팬데믹이 끝나길 서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글쓴이 박지나



I interviewed Seoha Fitts, a student at KSSNJ, about different things she was doing and her thoughts and feelings on the pandemic. She is 8 years old, and she is in second grade currently. She has been doing different things to fill her time up during quarantine. Most of the time, she is finishing her schoolwork and assignments. She is also keeping busy by reading books and watching TV shows and movies. Since she has so much time, she is spending a lot more time with her family than ever before. Some hobbies Seoha likes to do is finding new books and reading them, and making things out of clay. She also enjoys drawing a lot. Some things she likes to draw are trees and cacti, and things that are relevant to nature. Some



disappointments that were thrown her way was the quarantine restrictions, which means that Seoha can't have the freedom to do normal every-day life things like going out to shop, or go to the playground without having the fear of contracting the virus. She is also disappointed that her summer vacation might be affected as well. During summer vacation, because of the coronavirus, she might have to stay inside all the time, instead of being able to enjoy the weather and no school. Flights are also canceled, so her trip to Korea is canceled as well. Quarantine is affecting her in a negative way because online school is more stressful and not as fun as regular school. The pandemic is very stressful for everyone and she hopes that this will end soon.

Interviewer Leah Park

내 동생 도훈의 신나는 집콕생활

Dohun's Exciting Home Lif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루리 입니다.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동생 도훈에게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덟 살인 도훈은 Valley Forge Elementary School의 2학년이며 저와 같은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가 시작된 이후로 도훈이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고 평소보다 늦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며칠 동안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TV를 보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나와 오빠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항상 바빠서 도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지만 자가 격리 이후 가족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동생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서 차가 없는 길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평소때는 하지 못했던 물풍선 놀이를 뒷마당에서 즐겼습니다. 도훈이가 말하기를 “오늘은 정말 신나는 날이야! 집콕 기간이 아니라면 형님과 누나와는 이렇게 신나게 놀지 못했을거야!”

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며칠 동안은 즐겁게 지냈었지만, 이제는 동생은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친구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콕을 하고 있지만 가상 학습을 통해 학교의 수업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미술 수업을 통해 미술 학습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작품을 학교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공유 할 수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글쓴이 이루리

My name is Ruhri Lee, I attend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I asked my younger brother, Dohun, about what he has been doing during quarantine. He is an eight year-old second grader at Valley Forge Elementary School and attends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as well.

Since the beginning of quarantine, Dohun was delighted that he didn't have to wake up early and go to school and that he could sleep later than usual. During this time, he has also been playing his favorite video games, watching TV,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Before, it was difficult to spend time with him because everyone would always be busy, but because of quarantine there has been a lot more family time and as a result, he became very happy. On days when the weather was nice, he went outside and rode his bicycle in the driveway or around the neighborhood. He also took pleasure in doing fun activities that he would normally be unable to do during the school year like playing with water balloons in the backyard. He said, "That day

was so fun! Good thing there was quarantine because if there wasn't, I would never get to play with hyungneem and noona!"

As for school, although he enjoys staying at home, after several days, he started to miss going to school and seeing his friends. Even though he had to put up with this dilemma, he is staying positive because he is able to continue school through virtual learning. He said that he especially enjoys learning art through virtual art classes that school provides. Through these classes, he is able to continue creating and sharing what he learns with his school community. He is proud of the results he made. I am also proud that he is trying to do his best living in quarantine.

Interviewer Ruhri Lee

강아지반 (한민경 선생님)

<https://youtu.be/lKRr39KWBe0>



미소 천사, 전유나

Smiling Angel, Yuna Jeon

이 행복하고 귀여운 3학년 학생, 전유나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예쁜 미소로 인사하는 초등학생입니다. 그 웃음은 또한 부모님과 동생에게 매일 행복해 질 수 있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인 유나는 여동생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싶어 하지만 동생과 노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격리에서 여동생과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은 아름다운 자매의 우정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쿠터를 타거나 서로 달리는 것과 같이 서로 산책하고, 다른 활동을하면서 서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나의 온 가족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간을 통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더 가까워 졌다고 합니다.



유나가 여가 시간에 즐기는 다른 활동으로는 퍼즐, 책 읽기, TV 보기 등이 있습니다. 3학년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열심히 학교 공부와 숙제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나는 그녀에게 많은 학교 공부가 없다고, 그래도 가능한 빨리 끝내기를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고싶어 하지만 유나는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나는 소질있는 피아노 연주자로서 격리 시간 동안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계속함으로써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매일 연습함으로써 뛰어난 재능을 지닌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 위해 손가락 테크닉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희망합니다!

글쓴이 김민진

Happy and lively describes this cute third grader, Yuna Jeon. She is an elementary schooler who greets everyone with a smile. Serving as everyone's happiness, she makes her parents and sister smile every day. Such an outgoing student, Yuna can adapt to life in quarantine because of her sister. Although she misses her friends,

she enjoys playing with her sister. Their ability to have fun with each other throughout this whole quarantine shows their beautiful sister friendship. They have fun by taking walks and doing different activities together, such as riding the scooter and running. Yuna's whole family enjoys each other's company, using quarantine to have fun and get closer as a family.

Some other activities that Yuna enjoys during her free time include puzzles, reading books, and watching



television. As a third-grader, she still keeps up-to-date with her daily schoolwork, dedicating every morning to doing homework. Yuna replied that she does not have a lot of schoolwork, but she likes to get it done as soon as possible. Although she misses going to school and seeing her friends, Yuna continues to study and read, proving herself as an exemplary student. Additionally, Yuna is a talented piano player who aspires to become better by continuing online lessons with her teacher during quarantine. By practicing every day, she builds skill in her fingers to become an outstanding and gifted piano player. Yuna wishes for the coronavirus to quickly go away and hopes that everyone stays happy and safe!

Interviewer Jaclyn Kim

예진이의 자가 격리 기간 극복하기

How Isabelle is Overcoming Quarantine

권예진 학생은 4학년이며 한국학교 학생입니다. 자가 격리를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예진이는 격리가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 예진이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예진이의 경우 가상 학습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학습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진이는 밖에 나가서서 자전거 타기, Coraline, Master Chef와 같은 영화 /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ROBLOX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진이는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가족과 함께 홈메이드 빵을 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진이는 상점이나 다른 공공 장소를 나간 적이 없지만 집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루리

Isabelle Kwon is a 4th grader and a student of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When quarantined first started, Isabelle says she was confused about what quarantine was or what was happening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it all happened so fast. As of now, she feels adjusted to quarantine and staying at home, but she misses being at school and seeing her friends. For Isabelle, virtual learning has also been difficult to understand and follow along with, but she does feel that online schooling has been helpful in being able to contact her teachers through video calls. To spend the extra time in quarantine, Isabelle has been reading, biking outside, watching movies/TV shows like Coraline and Master Chef, and playing ROBLOX with friends online. She says her favorite activity she has done so far was baking homemade bread with



her family. Isabelle hasn't gone outside to any stores or other public places, but she is spending her time nicely at home and making the best out of quarantine.

Interviewer Ruhri Lee

독서에 빠진 동은이

Bookworm Ian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짜증을 느꼈습니다. 학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4학년 학생, 동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집에 있어야 합니다. 동은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로 하루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 격리 시간 동안 동생과 어울려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항상 서로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은이와 그의 형제는 자전거를 타고 서로 같이 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들은 서로 가까운 동료가 되어 매우 좋아하고 의견 차이가 거의 없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은이는 또한 부모님의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기꺼이 거실을 청소하고 자신의 방을 깨끗이 하면서도 부모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 훌륭한 학생, 동은이는 매일 스스로 책을 읽고, 때로는 동생과도 함께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독서가 작가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라는 취미를 좋아합니다. 동은이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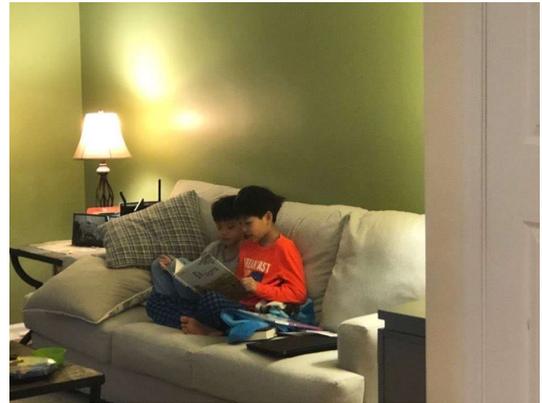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동은이는 앞으로 더 나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 연습하는 피아노에 소질있는 연주자입니다. 바라건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동은이가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을 희망해 봅니다!



글쓴이 김민진

For the past few weeks, many students have felt frustrated and annoyed by the inability to go to school because of the coronavirus. School is a way for kids t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nd learn new stuff. A fourth-grader who once enjoyed the anticipation of going to school every day still keeps his anticipation intact in quarantine. Ian Shin keeps a positive mindset after waking up by staying both

productive and active. He spends his time in quarantine by hanging out with his younger brother all day. Ian and his younger brother have always been close to each other, but doing activities with each other have drawn them closer. Ian and his brother ride their bikes, sleep with each other, and play with their toys together. They enjoy each other's company very much and rarely have any disagreements. Ian also likes to help his parents out with chores around the house. He willingly vacuums his living room and cleans his room, bringing a smile to his parents. As an excellent student, Ian enjoys reading books, sometimes with his brother, too, every day. He loves this hobby because reading allows him to experience the story through the eyes of the narrator. He enables himself to grow as a reader and student by reading different genres of books. Lastly, Ian is a talented piano player who practices to become an even better piano player in the future. Hopefully, the coronavirus will go away quickly so that Ian can go back to school and see his friends again!



Interviewer Jaclyn Kim

오늘도 건강하게!

Be Healthy Today Again!

저희 학교의 김로운 학생은 제가 아는 학생중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예상했듯이, 김로운 학생은 건강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누나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숙제들을 일찍 끝냅니다. 학교 숙제를 끝난 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로운 학생은 뛰어난 수영선수인데, 지금은 연습을 할 수 없으니, 운동을 하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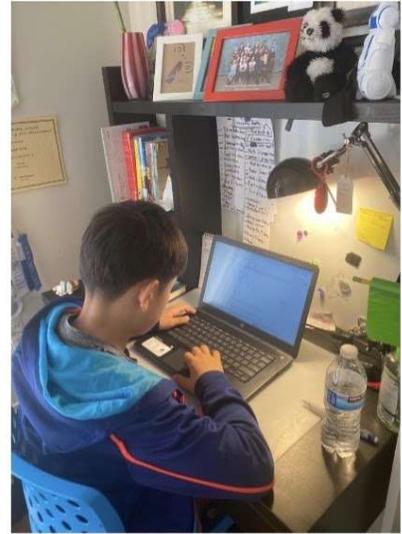


지금 cardio core 운동을 하지만, 어떨 때는 농구와 축구 같은 재미있는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떨때는 힘들어서 쉬운 운동을 하고 싶지만, 몸이 더 튼튼해져서 시즌이 시작하면 이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느 5학년 학생들처럼, 게임을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줌이나 구글 행아웃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 들기 전, 모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잠에 듭니다. 쌍둥이 누나와는 다르게 그는 중학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학교를 빨리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김로운 학생은 슬기롭게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밖에 어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글쓴이 박유빈

Caleb is one of the most athletic people I know and as expected, he is living a healthy life during this stay-at-home period. Just like his sister, Faith, he wakes up early to finish his schoolwork. When he finishes all his necessary tasks for the day, he begins his workouts. Caleb is a good swimmer but since he cannot continue to practice, he workouts instead to keep his body and mind in shape. He mainly focuses on the cardio core but sometimes, he would do fun workouts including

basketball and football. Of course, sometimes he gets tired and wants to do simple workouts but he is determined to keep his body in shape so that when the season restarts, he can be better than other competitors. When he finishes his workouts, his parents prepare him an excellent meal, he loves to eat pork belly more than anything else. Just like other 5th grade boys, he loves to play games and talk to his friends through Zoom or Google hangout. Before going to bed, he reads adventure books, which is his favorite genre of book. Caleb, unlike his sister, is excited to go to middle school as he thinks it will be more exciting than the elementary school. But most importantly, he thinks this time period is getting really boring and he misses going to school. To sum up, although Caleb is spending his time productively by studying and working out, he misses going outside and wants this time to end quickly.



Interviewer Youbin Park

그리운 일상 생활

Missing Daily Routine

저희학교에 재학중인 김슬기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학교가 없지만, 그녀는 항상 아침 7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김슬기 학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일어나서 학교 과제를 하고 그 다음은 자기만의 자유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자유시간 마저도 알차게 보냅니다. 그녀는 보통 밖에 나가서 페인팅 하는것을



좋아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오빠 동생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저녁 준비하는것을 도와줍니다. 잠에 들기전, 그녀는 책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지금은 "A Story That Cannot Be Told" 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더 많은 소설을 읽고 싶어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김슬기 학생이 얼마나 학교를 그리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기였는데 초등학교를 학교에서 마무리 하지 못해서 슬프다고 합니다. 또한, 수영을 좋아하는 슬기 학생은 수영도 못해서 안타깝고 빨리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보내는 김슬기 학생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생활이 그립고 빨리 이 시기가 끝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글쓴이 박유빈

Faith's interview about her quarantine life revealed a lot of good habits that she was forming during this time period. Although there is no school she would always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round 7. There is an old saying that "Early Bird Gets the Worm" and by waking up early, she was able to accomplish more things than her friends. She would start her day by finishing the daily assignments for the online school. Then, for the rest of the day, she would spend it on her own goods. She usually spends her time painting outside. Faith enjoys painting birds. When it is

raining, she would play hide and seek inside the house or help her parents prepare the meal. Finally, she finishes her day by reading a book. The book she is currently reading is called "A Story That Cannot Be Told". She believes that right now is the perfect time to read some great books, in particular, fiction books that she has been meaning to read. She finishes her interview with how much she misses the time before this outbreak. She misses going to school and since it was her last year of elementary school, she is disappointed that she cannot do the end of the year party or yearbook signing. She is especially disappointed that she cannot go swimming and hopes that she can return to her normal life soon. She loves living a wise life and spending more time with her family, but she hopes that this pandemic ends soon.

Interviewer Youbin Park

올리비아의 다양한 취미 활동

Olivia's Hobbies and Hope for Returning to Normalcy

올리비아는 2019년에 우리 한국학교에 온 새로운 학생입니다. 올리비아는 12살이고 6학년이며 나와 같은 강아지반입니다. 지금 올리비아는 스스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 다른

여러활동과 취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 학교수업과 숙제를 완성하는데 보냅니다. 학교수업을 하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산책을 하고 가족 특히 동생과 더 많이 지내기, 엄마와 베이킹하기, 영화보기 같은 일들을 즐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비디오 만들기와 진흙으로 동물이나 물건같은 조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바느질로 동물인형을 만드는 것과 목도리를 만드는 뜨개질도 좋아합니다. 올리비아는 이번 팬데믹 때문에 좋아하던 텔레비전 쇼들이 더이상 방영되지 않고 학교가 이번 학기 문을 닫아서 한국학교와 학교에서 친구들과 옆에 앉아서 같이 지내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히 2년마다 가는 한국여행을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 못 가는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전에는 자주 가던 쇼핑을 못가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는데 올리비아네 가족은 계속 수입이 있고 지낼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손세정제, 마스크, 장갑 같은 물품들이 있어 그것도 감사합니다. 약간의 걱정은 한국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과 서로 연락을 자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올리비아도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고 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지나

Olivia Fitts is a new student in KSSNJ who enrolled somewhere in 2019. She is a 12-year-old student, in the 6th grade. During quarantine, she has been keeping

herself busy and productive with different activities and hobbies. For the majority of her time, she is busy completing schoolwork and homework assignments on online school. Although schoolwork takes most of her time, Olivia also enjoys taking walks, bonding with her family (especially her sister), baking with her mom, and watching movies. Additional activities include creating stop-motion videos and making clay sculptures like animals and objects. She also likes to sew stuffed animals and is currently working on her knitting project, which is a scarf. Olivia has been disappointed that a lot of her favorite TV shows have been canceled because of the pandemic and that school has been canceled for the rest of the year. She is unable to socialize and interact with her friends at KSSNJ and school, which is not sitting well with her. The biggest disappointment is that her trip to Korea (which happens every two years) has been canceled because flights have been canceled. Olivia can't go out to shop often like before and when she forgets to get something she has to wait another week to get it, for safety reasons. She is so grateful for her house and the fact that they still have a steady income even though many people have lost jobs due to COVID-19. She is also grateful for supplies like hand sanitizer, masks, and gloves. She is a bit worried about her grandparents and relatives living in Korea. She thinks that they are not getting enough updates about them as the connection can be bad between them at times. Like everyone, Olivia wishes that this will blow over soon, so she can get back to living her normal life.

Interviewer Gina Park

지원이의 새로운 취미 만들기

Johanna's New Hobbies

우리 모두는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살이고 4학년인 강아지반 강지원은 자기의 재능과 취미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취미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지원이도

더욱 더 자주 많이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학교 짐시간에 하던 운동과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와 축구 클럽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지원이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지원이는 스케이트 보드를 어떻게 타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연습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합니다. 뒷마당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데 지금 같은 때에 완벽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일 한시간씩 트럼펫도 연주합니다. 그리고 할것이 없을때는 동물 모양이의 종이접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실망스러운것은 지원이의 생일파티입니다. 가족들과 이미 계획했던 파티가 격리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파티는 먼미래로 연기 되었기 때문에 파티를 못할것 처럼 생각됩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과 친구들이 그리웁습니다. 친구들과 더이상 만나서 놀수 없고 지원이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이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원이는 종이접기, 트럼펫 연주, 스케이트보드 타기, 다른 운동을 하느라 꽤 바쁩니다.(나랑 틀리게)



글쓴이 박리아

Everyone is bored because we are all stuck in our houses, but Johanna is keeping herself busy throughout this time. Johanna is in 4th grade, and she is 10 years old. She uses her time to get better at her talents and hobbies. Johanna has even made a new hobby that she practices every day. Like most people, Johanna has decided to

exercise more often. Other than exercising in P.E. At school, and playing soccer, she didn't work out everyday. Now that both school and soccer is closed, Johanna didn't exercise until she started to have a workout routine. She also started learning how to ride a skateboard. She practices every day, saying it is so much fun. Skateboarding is a backyard sport, and it is a perfect sport for quarantine. Johanna plays trumpet for an hour every day, and she makes origami animals when she has nothing to do. One thing Johanna is



disappointed about is her birthday party. Her family already had one, but the party with her friends got delayed until after quarantine. The birthday party is going to be so far from her actual birthday, that she feels like it won't be a birthday party. Johanna also said she missed her old routine and her friends. She won't get to hang out with friends, or visit her family. Her grandmother, whom she is also close to, doesn't live with her, so she can't see her grandmother, either. Johanna is pretty busy, making origami, playing trumpet, riding her skateboard, and exercising(unlike me).

Interviewer Leah Park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Day to Go Back to School

하영이는 10 살이며 6 학년입니다. 자가 격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학교에 갈 필요가 없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았지만 모든 일들이 빨리 일어나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영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배우는 새로운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울때면 학교에서 배우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크게 변한게 없고 설거지를 돕거나 식사 전에 식탁 차리기 등 집안 일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는 사촌이나 여동생과 함께 ROBLOX를 같이 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하영이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식탁을 정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영이는 Target으로 쇼핑을 하러 갈때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 불행한 시간이라도 하영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쓴이 이루리

Hannah Kim is a 10-year-old student at the Korean School and is in 6th grade. When quarantine first started, Hannah felt happy because she didn't have to go to school and that she could spend more time with family, but at the same time, she felt weird because everything happened so fast. She realizes that coronavirus is serious and that everyone has to be careful. After being in quarantine for so long, Hannah misses seeing her friends and teachers and wishes she could go back to school. Online schooling has also been hard for Hannah because she doesn't understand the new content she's learning and she thinks it would be better if she



learned at school. At home, Hannah says that not much has changed except she



helps her mom a little more around the house with things like washing the dishes or setting the table.

In her spare time, Hannah also plays ROBLOX with her cousin and sister and goes outside for walks with her family. Hannah likes to organize things so when I asked her what she had the most fun with so far in quarantine, she said that organizing her

table was the best. Recently, Hannah even got the chance to go to Target, and to stay safe, she wore a mask. In this unfortunate time, Hannah is trying to make the best out of the situation.

Interviewer Ruhri Lee

리아의 요즘 생활

Leah's interesting and healthy life

나는 지금 대유행병동안 집에서 어떻게 격리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박리아는 11살이고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에서 5학년 강아지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무용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리아는 평범하게 지내던 일들을 못하고 친구들을 못 만나고 5학년 졸업식을 못하고 새로운 학교의 6학년을 올라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 너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숙제, 학교 프로젝트,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뜨개질로 컵받침을 만들고 목도리를 만드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리아는 엄마와 함께 베이킹과 쿠킹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리아가 좋아하는 것은 치즈 케익과 쿠키를 만들어서 이모네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집 앞에 두고 온다고 합니다)

리아는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지내야만 하는데 먹을 음식과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이 힘든 때에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엄마와 아빠에게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리아가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매일매일 집에서만 지내는 일은 지치고 불편합니다. 리아는 빨리 이 힘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글쓴이 박지나

I would like to present how Leah is currently spending her time in quarantine, during this pandemic. Leah Park is 11 years old and is a 5th grade student at KSSNJ and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 lot of disappointments have been thrown her way, such as not being able to see her friends and missing out on her graduation ceremony, as she is a 5th grader, getting ready to go to 6th grade, which means a new school. Most of the time, she is working on schoolwork, projects, and practicing violin. Leah has discovered many new interests like crocheting yarn coasters for cups and knitting scarves. She also loves to bake and cook with her



mother and they especially like to bake cheesecakes and cookies to give to her aunt's and friends (just by leaving the items on the doorstep). She has also been exercising a lot more and has made an effort to stay healthy. Leah is also making an effort to break bad habits and create better ones for herself. She also learned to be grateful for her family and that she had food and shelter, while some people have to stay out in the streets. She appreciates her mom and dad more than ever, as they are supporting each other through this tough time. She feels very restless and uncomfortable, having to stay home all the time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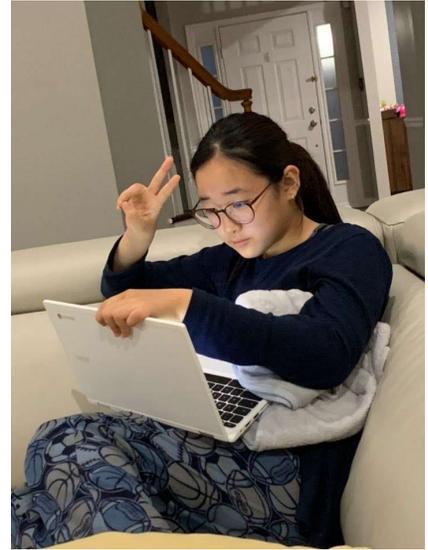
not having the freedom to go out whenever she wants now. Like all of us, she is desperately wanting this pandemic to end, so we can all return our normal lives and socialize again.

Interviewer Leah Park

지은의 모범적인 날들

Esther's Exemplary Days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격리하며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학생인 유지은 학생은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학생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여가 시간 동안 모든 장르의 책을 읽고 그 이야기에서 위로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서 외에도, 그녀는 매일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 세 가지 악기를 부지런히 연습합니다. 재능있는 음악가처럼, 그녀는 가족과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고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에스더는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 몇 분 동안 성경을 한국어로 읽는데에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때에 자신의 시간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동생과 놀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좋은 날씨를 느끼면서 아빠를 도와 뒷 마당을 청소하고 묘목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지은이는 매일 자신이 심은 묘목이 빨리 자라고 성숙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일상 생활을 곧 계속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쓴이 김민진

In the last few months, the coronavirus has upended many of our lives. Despite living in quarantine, many students shared how they have made use of their time by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A current elementary school student, Esther Yoo, epitomizes the ideal, productive student. When asked what her favorite activity is

during her free time, she responded that she enjoys reading books. Esther likes to read all genres of books during her free time, finding comfort in the stories she reads. On top of reading, she also diligently practices three instruments — piano, flute, violin — on a day-to-day basis. As a talented musician, she likes to share her music with her family. However, she holds the dissatisfaction of not being able to go anywhere and sitting in one place for too long. We can all relate to her, right? As an avid Christian, Esther dedicates a couple of minutes of her day to read the bible in Korea. She realizes this helps her to continue staying close to God during this struggling time and increasing her knowledge in the Korean language. Esther also uses her time in quarantine to her advantage by spending time outdoors and playing with her sister. Feeling the nice weather outside lately, she says that she helps her Dad power wash the background and plant her seedlings. Everyday, Esther watches her seedlings grow and mature, hoping that they become fully grown soon. She hopes that the coronavirus will quickly go away so that she can continue her normal daily life soon!



Interviewer Jaclyn Kim

지나의 더 바쁘게 살기

Gina's Busier Life

우리 언니 지나가 요즘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얘기해 보았습니다. 지나는 남부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6학년 강아지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지나는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5개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은 이때에 지나는 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동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렸을때 필요한 면역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의 좋은 날씨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모두가 집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므로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아무데도 더이상 갈수 없어서 지나는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상 생활들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자주 서로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지나는 책을 읽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피아노 연습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학교숙제와 더 많아진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다 더 많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생활했던 때가 그리다고 합니다.

지나는 많은 일들이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책읽기, 드라마 보기와 뒷 뜰에서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지나도 이번의 격리 시간이 빨리 끝나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글쓴이 박리아

I talked to Gina, my sister about what she was doing in quarantine, and her thoughts of the whole thing. She is in sixth grade and is a student at KSSNJ. Gina is



keeping busy and doing many things so she doesn't get bored. She answered the same five questions I asked to the other students.

During quarantine, while we have plenty of time, Gina has decided to exercise more often. Exercising helps the immunity system grow stronger, which is what we need if we do catch the virus. Gina is also trying to eat more healthy things in addition to a healthy lifestyle. One thing Gina thinks people are missing out on is the great weather. The weather is so sunny and nice, but no one can enjoy it when they are locked up in the house.

Unfortunately, nobody can go anywhere anymore, and because of that, we can't visit

some people. Gina misses her friends and her relatives. She also misses going to school, and just having a normal schedule. Not being able to visit relatives means no family time. In our family, we visit each other often, which is something we can't do anymore.

Some things Gina does to keep herself busy are reading books, watching movies and dramas, and practicing piano. Most of the time though, she is busy doing her schoolwork and additional projects. She also finds that online learning is more appealing to her than normal school, but she still misses socializing with her peers and teachers.

Although Gina is disappointed about many things, she can still keep busy by doing other things. She can call her friends, read books, watch dramas, and she can enjoy the weather in the backyard. Like all of us, she hopes that quarantine will end soon so we can return to our normal lives.

Interviewer Leah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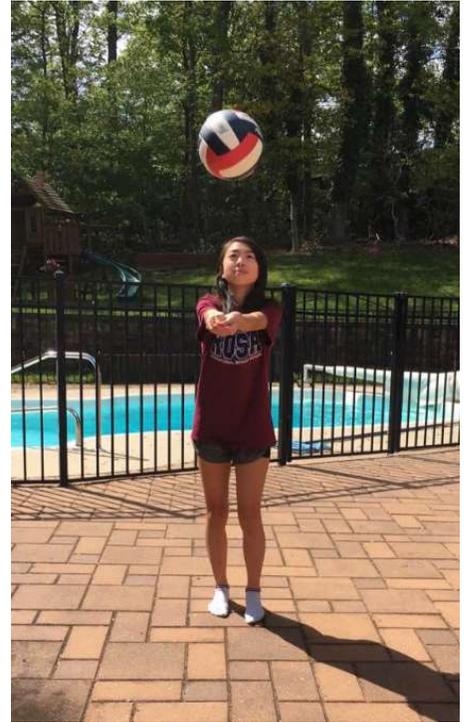
변화된 예선이의 생활

A changed Angela's life

최예선은 12살이며 현재 우리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6학년 강아지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예선이는 스스로 더 활동적이고 바쁘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이는 동료선수들과 배구를 할 수 없고 배구경기에도 참여할 수 없어 무척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선수들과의 모임과 보통처럼 배구팀에 있는 것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선이는 대부분 가족들과 보내고 있고 공부를 하고 학교숙제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선이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것입니다. 동생들과 동네를 스케이트 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선이는 가족들 특히 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동생들이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항상 예선이가 필요할 때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있어서 예선이는 요즘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선이가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들을 만나서 놀 수 없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학기동안 학교는 문을 닫았고 방과후 활동 특히 예선이가 너무 좋아하는 배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구는 예선이의 생활 중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길 예선이는 바라고 있습니다.



글쓴이 박지나

Angela Choe is currently a student at KSSNJ and is almost 12 years old, in 6th-grade. She is spending her time doing various things during quarantine to keep herself active and busy. Because of quarantine, Angela has had disappointments cross her



way, like not being able to play any volleyball with her teammates, and participating in volleyball games. She also misses getting together with her teammates and just being with her team in general. Most of the time in quarantine, she is spending more time with her family, studying, and doing her schoolwork. A new hobby she discovered while in quarantine is skating. She is skating with her siblings all around the neighborhood, and she also enjoys drawing. Some things she has learned to be grateful for is her

family, especially her siblings. Although they can be annoying at times, Angela is grateful that they are there for her, and for the fact that she never gets bored with them. Her siblings also keep her company and she hangs out with them. The pandemic (COVID-19) is affecting Angela in a negative way because she can't be with her friends and hang out with them at school and other places. Because school is closed for the rest of the year, she misses attending after school activities and sports, such as volleyball. Sports like volleyball were a big part of her life and now she can't be apart of the activities and the team.

Coronavirus is negatively impacting us and like all of us, she wishes that this pandemic will end soon.

Interviewer Gina Park

코끼리반 (구지현 선생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

Doing the Best I Can

저는 6학년이며 12 살입니다. 자가 격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나는 친구와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처음보다 걱정하지 않고 조금은 용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격리에 대한 나쁜 점은 친구 나 다른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점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집에서 변화 한 것들은 늘어난 집안일, 자주 손씻기, 야외에 나가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Wi-Fi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반 친구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격리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재미있는 일은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 상점에 아무 곳에도가본 적이 없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바이러스가 가능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권지우

번역 이루리

I am in sixth grade and I am 12 years old. When quarantine first started, I was worried and concerned for my friends and family. I now feel not as worried and a little bit brave now. The bad thing about quarantine is I cannot see my friends or some of my family.



The good thing is I get more free time! Some things that have changed in our life at home are more chores, more washing hands, and no outdoor playing. Schooling online is worse because if you have bad WiFi, you can't really participate and be with your class. You also can't see your classmates in person. I have been watching tv and doing my daily work to spend time during quarantine. The most fun thing I've done during quarantine is watching movies with my mom. I have not been to any stores lately because of the virus and I like to be very careful not getting the virus. I want to say that I hope the virus is over as soon as possible!

Writer Jiwoo Kwon

Translator Ruhri Lee

기억에 남을 자가 격리

Memorable Quarantine

제이미는 12살의 한국 학교 학생이며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검역이 시작되자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일정들이 모두 취소되어서 풀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시기에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매일, 매순간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자신에게는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그녀의 자매들도 함께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녀의 생활이 훨씬 더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학교의 경우 온라인 학습 방법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어렵고 온라인 수업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지 않고 생활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요리, 게임 및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제이미는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모든 사람이 그때까지 안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글쓴이 이루리



Jaime Chung is a 12-year-old student at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and I asked her how she has been spending her time in quarantine. When quarantine started, Jaime was devastated that she would not be able

to finish the school year and that she would have no option but to stay at home. And she continues to feel dispirited from the canceled events. Also, even though





she was able to bond with her family during these times, seeing them every minute of the day was a bit to handle for her. Jaime also says that her life at home is a lot more chaotic since all of her siblings are home all the time. For school, Jaime thinks that the online learning method is more difficult than regular school and she feels it will definitely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Jaime also does not go out to any public places and stays home. Even though there are these unfortunate aspects to quarantine, Jaime has been able to spend her time cooking, playing games, and calling her friends. She says that her favorite of the things she's done is calling her friends and watching movies with them. Jaime hopes that quarantine will end soon and that everyone stays safe and protected until then.

Interviewer Ruhri Lee

알렉스의 집콕생활

Alex's Quarantine Life

지난 3월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집콕생활이 시작된 이후 변화된 Alex의 생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렉스는 보통 아침 9 시경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 후,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미적분학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연주하는 두 가지 악기 중 하나인 클라리넷을 한 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스는 한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기 전에 점심을 먹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마치면 알렉스는 한 시간 동안 다시 공부를 한 후 자신이 소유 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그는 모든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이후로 더 많은 자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동네를 산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알렉스는 여동생과 아버지와 함께 배구를 하고 배드민턴도 자주 칩니다. 알렉스는 매우 부지런하고 똑똑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년입니다. 알렉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친구나 학교 친구와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었지만 가족과 더 유대를 맺고 자신을 발전시킬 시간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는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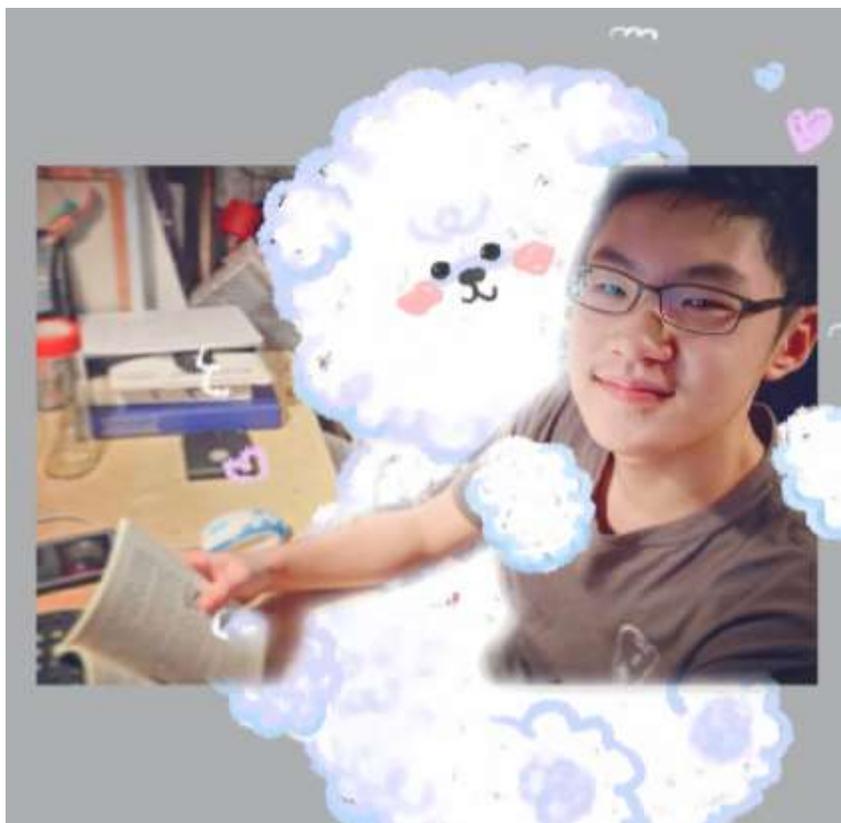
상황 가운데서도 알렉스는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선재

I am going to introduce the life of Alex during this quarantine time. Alex usually wakes up at around 9 o'clock to eat breakfast. Afterwards, he does calculus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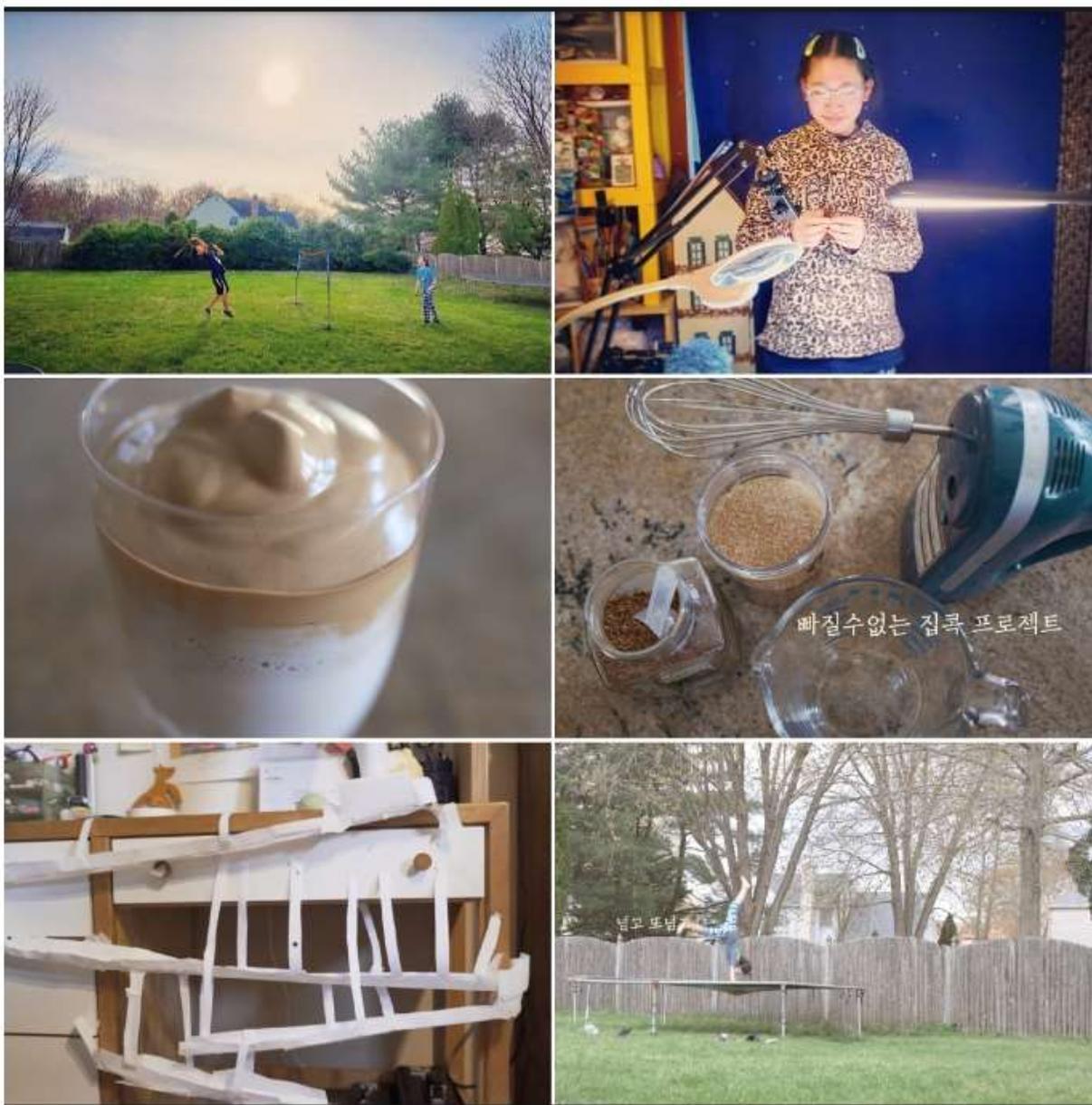
about 2 hours. He then plays the clarinet, which is one of the two instruments he plays, for one hour. Afterwards, he eats his lunch before playing video games for one hour. Once he is done playing his video games, Alex will do his schoolwork for around an hour and practice playing the other instrument that he owns for one hour. Then he will have dinner with his family and gets to have free time for the rest of the day, which is usually when he will do all of his homework and whatever he needs to do before he gets ready to go to bed. Since he has more free time during quarantine he has been able to ride his bike and take walks around his neighborhood. During this time, Alex has also played volleyball and badminton with his sister and father. Alex is a very studious and hardworking boy who is very diligent and smart. Because of this social distancing, he has been able to do a lot of things that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when he had school and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he no longer has during this time. Alex has lost many opportunities to go out and socialize with his friends and classmates because of quarantine, however, he has also been able to more strongly bond with his family and find time to develop himself from it as well.

Interviewer Ethen



잠순이 앨리슨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Sleeping Beauty Allison



내 여동생은 잠자는걸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잠순이' 라고 부릅니다. 앨리슨은 격리생활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꽤 괜찮지않나요?

동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고 느끼고있습니다.

게다가 앨리슨은 엄청난 격리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동생이 침대에 없을 때는, 숙제를 하거나, 미술 프로젝트에 전념하였습니다.

엄마의 유튜브 채널을 위해 동생은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을 돕습니다. 내 동생의 과학숙제 중 하나는 루브 골드버그 기계라고 불리는 STEM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미노나 경사로와 같은 많은 움직이는 부품이 통합되어 골을 넣거나 종이를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는 등의 간단한 작업을 완료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생 앨리슨은 완전히 종이와 테이프로 만들어진 램프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도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국수를 먹는 등 쉴 시간은 여유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앨리슨은 또한 요리라는 새로운 관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즉석 휘핑 커피(이름은 달고나 커피라고 합니다)를 만들었는데, 부모님은 너무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앨리슨의 격리 생활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이 기간 동안 더 나아지기 위해 피아노와 플루트도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적으로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배우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앨리슨은 나와 함께 배구나 배드민턴을 칩니다. 또 동네를 산책하는 등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앨리슨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글쓴이 강성유

Allison has been spending most of her quarantine life, well, sleeping. Pretty great, right? She feels that there is no better time than now to luxuriously stay in bed for as long as she wants. In addition to that, Allison has been having an awesome quarantine. When she's not in bed, she's doing her homework, or helping her mom film content for her YouTube channel that is dedicated to art projects. One of her homework assignments was a STEM project called a Rube Goldberg machine, which incorporates many moving parts such as dominoes or ramps that causes a chain

reaction to complete a simple task, such as scoring a goal, or stapling a paper. Allison creatively designed a ramp system made entirely out of paper and tape.

Even though she works a lot, there is still time to relax, such as watching movies or eating noodles with her family. Allison has also found a new interest: cooking. Recently, she made instant whipped coffee for her parents, which they said was delicious.

One of the things I think make Allison's quarantine life unique is that she also practices piano and flute to continue to get even better during this time. Not only is she learning musically, but she also strives to stay on top of the work and be ahead of the game, as she teaches herself algebra for the future. On top of that, Allison stays healthy and fit by constantly going outside to play volleyball or badminton with her brother Alex, or taking a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Allison hopes to use this difficult time as a golden opportunity to grow, stay in good shape, and become a better person than she was before.

Alex Kang

자가 격리가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며

Waiting Eagerly for Quarantine's End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이하은 입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온라인 학교 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또한 페이스 타임 및 화상 통화를 통해서만 친구와 대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격리에 대한 좋은 점이 없습니다. 친구를 볼 수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없고, 심지어 온라인 학교와 같은 것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팅과 과제를 하기보다는 직접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합니다. 친구들과 페이스 타임을 하는 것 외에는 여행하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가 격리 기간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은 아마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서 몇 명의 가족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두팀을 만들어서 배구를하고 킥볼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Rita 's에 갔습니다. 이 지루한 격리 기간 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활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로 집에 있다보니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온라인 학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나절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받다보면 머리가 많이 아프고, 학교를 다닐때 보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 많은 숙제를 해야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것은 금요일에 수업이 없고, 주중에 끝내지 못한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수 있도록 치료법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Joanna Lee

Hello. My name is Joanna Lee and I am in the 5th grade. Not a lot has changed at home during the quarantine. The biggest change is probably online school. We have online school for the rest of the year. We also only get to talk to our friends through facetime and video calls.

For me, there is nothing good about isolation. There are plenty of bad things though, such as not being able to see your friends, not being able to go anywhere without a mask, and even online school. I prefer to go to an actual school than sit in front of my computer all day to do live meets and assignments. I also don't like the fact that we can't do anything during the summer.

We can't travel or meet with friends, except through facetime.

The most fun thing I did in isolation was probably when we went to the park.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and met with a few family friends. We played volleyball and created two teams to play kickball. Afterward, we went to Rita's. It was the most active I was since the quarantine.

All the craziness with the coronavirus and quarantine shut down makes me actually miss waking up at 7 am to go to school. I don't particularly enjoy online school better than real school. Being on a computer half the day gives me a massive headache and we get more assignments than we did before. The only good thing is now we don't have any classes on Friday, only some work we have to do. I really hope all the coronavirus blows over quickly and they can find a cure.



Writer Joanna Lee

Translator Ruhri Lee

시아의 긍정적인 생활

Thinking Positive

우리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시아 학생은 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슬기롭게 시간은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매일 다니던 학교를 못가게 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잠을 많이 자고 시간에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예는 강아지고 많이 놀지 못했지만 지금은 놀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엄마도 가족들이 집에 있으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에 여러가지 색깔의 매니큐어를 발라보는 것도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대도 못나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혹시라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하는게 싫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로 학교에서 수업도 할수 없고 선생님, 친구들도 만날수가 없지만 화상 채팅인 줌미팅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즐겁고 다시 만날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집니다.



글쓴이 이루리

Ally is a student at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From the start of quarantine, like all students, she couldn't go to school so she didn't hav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of this, she is able to sleep in and do everything comfortably without worrying too much about time. Ally's mom says that because the family is at home all the time now, she makes a lot of delicious food. Ally also had fun giving herself a manicure to spend the time. Still,



Ally feels disappointed that she's not able to meet her friends and that she has to wear a mask every time she goes outside. Though she is not able to talk to them in person, Ally is grateful that she is able to contact her friends and teachers through video calls and she is staying positive and hopeful for the day to meet them again.

Interviewer Ruhri Lee

교육적이지만 재미있게

Educational But Entertainingly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최지윤 학생은 자신의 슬기롭고 놀라운 생활과 집콕 생활에 관한 자신을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많은 시간을 내년 학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윤학생은 열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들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영상통화로 수업을 할 때 선생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는 별도로 책을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 지금 “Gone

too Far” 이라는 책을 읽고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20권 이상을 책을 읽었고 더 읽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마다 줌

미팅을 통해 한글학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며 한국어도 까먹지 않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연습도 매일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Holidays in Paris” 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비록 학업과 공부로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 배구도 하고 자전거도 탄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동생과 탁구도 치며 즐겁게

놀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윤 학생은 워라벨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공부면 공부, 놀기면

놀이, 모든 방면에서 다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글쓴이 박유빈

Through the interview, Remi shared her remarkable time during the quarantine and her opinions on quarantine. It seemed like she was using her free time wisely to prepare for the next school year and academically enriching herself.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nline school through live meetings and completing the assignments with the best of her ability. Whenever she has a question, she ardently asked the question to her teacher through the Zoom meeting to clarify and get

better ideas on concepts that she is learning. In addition to school work, she continued to read books from the online library and is currently reading a book named, "Gone too Far" right now. She read over 20 books over 2 months and she wants to read more through the online library. Additionally, she continues to



study Korean through Online Korean School. She has a Zoom class every Saturday with her teacher to learn and continue to use Korean while the school is closed. She said that it was a good way to not forget Korean and keep her identity. Lastly, she practices the piano and she just started playing a song called "Holidays in Paris". Although she is busy with herself with studying, she also has fun during this period. Her family goes outside to play volleyball and ride the bikes and whenever it is rainy, she plays Table Tennis with her brother at home. Remi is living a work-life balance life during this stay-at-home period and she is totally excelling in both studies and playing.

Interviewer Youbin Park

책벌레 김청운의 정치생활

Joshua the Bookworm and the Political Analyst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 깨지기 쉬워 자기관리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김청운 학생에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청운 학생은 스케줄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같이 매일 학교 숙제를 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책도 더 많이 읽습니다. 이제껏 코로나 기간 동안 *The Zodiac Legacy*, *Hidden Talents*, *Hunger Games* 등의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책을 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나 뉴스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김청운 학생은 이런 가족끼리의 대화들이 토론과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수영선수로서 이 기간동안 체력과 지구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약했던 부분도 향상시키고, 체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나가서 뛰겠다고 합니다. 김청운 학생은 지금 이 시기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속상하지만 곧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글쓴이 박유진

One of the downsides of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is difficult to retain your daily life, which can lead to losing some of your talents. However, for Joshua Kim, a 7th grade student at KSSNJ, he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that drawback because he is trying to live a scheduled life. In order to keep the school mindset, he does the school assignments in advance and reads books daily to enhance his knowledge in literature. So far, he has read *Zodiac Legacy*, *Hidden Talents*, *Hunger Games*, etc. He is looking forward to reading more books during the quarantine to stay in touch with literature. Also, his family regularly discusses current events, especially COVID-19. He mentioned that while eating dinner, they usually have a discussion on

politics and world issues. He said that this is helping him to maintain his debate and talking skills. In addition, he has been running every day to keep his body fit for sports and increase his stamina. As a swimmer, he felt that he needs to exercise

regularly to maintain his body form. He felt an urgency to preserve his strength and stamina as staying home will result in muscle loss. He also thought that the COVID-19 issue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his health and endurance. Thus, he set a goal to exercise at least for 30 minutes every day and he is achieving that goal by running. Joshua is disappointed that he cannot practice currently, but he is hoping that the situation will get better soon and will be able to swim again.

Interviewer Youjin Park



집중할수 있는 시간

Time to Focus

박희준 학생을 인터뷰 했습니다. 현재 6학년이며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가 시작되자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학교가는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름 방학 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희준이에게 주어진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 해야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희준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고 부모님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대부분 엄마가 맡아서 하셨던 설거지를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요리도 만들어봤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에 자전거 타는 것도 기분전환으로 좋았습니다. 밤에는 불을 피워서 마쉬멜로우를 구워 먹는것도 신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퍼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500 피스, 700피스, 1000피스 퍼즐도 완성했습니다. 아직도 1000피스 6개가 남아있습니다. 자가 격리하는 동안 그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 할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글쓴이 missing

Joshua is a 6th grader and a student at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Josh is enjoying this time in quarantine because he is able to escape from the things that he normally would have had to do when social distancing was not happening yet. For example, he doesn't hav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or take the bus to school. This has been the first time that Joshua had this long of a break from school and life, other than summer vacation, so he was a little worried about how



he would use it. He, first, looked around his house for what he could do and even shared possible things he could do with his parents. Some of these things include, washing the dishes, cooking food that can be made easily, and when the weather is nice, go outside and ride his bicycle. Josh says that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he's done so far was roasting marshmallows on a bonfire at night. The thing that Josh had the most fun and what he focused on the most was finishing a puzzle. He has completed many puzzles including 500 pieces, 700 pieces, and 1,000 pieces. Josh still has a 6,000-piece puzzle remaining. It's good that he has a lot of time to focus on what he likes during his time of isolation.



Interviewer missing

호랑이반 (이민우 선생님)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If You Can't Avoid It, Let's Enjoy It!

Jared Kim은 13 살이며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되자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서 기뻐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Jared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친구와 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비디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Jared는 격리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합니다. 격리가 시작되기 전에 생활이 훨씬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에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나쁜점은 여동생과 더 많이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이 적어서 쉬워졌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검역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 비디오 게임, 그리고 YouTube 동영상을 휴대 전화로 시청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 중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외출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 예방을 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는 가지 않았고, 가족들이 알고 지내는 어린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이시기에, Jared는 집에서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루리

Jared Kim is 13 years old and attends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When quarantine started, he was thrilled because he didn't have to go to school, but

at the same time, he was also disappointed because he couldn't hang out with his friends. As more and more time continues to pass, Jared feels that being in quarantine is boring since the only fun thing he can do while talking to his friends is video games. Jared thinks quarantine is bad because it limits his choices on what he can do to have fun. He says he much prefers life before quarantine has started. At home, Jared does more chores and unfortunately, more fights with his younger sister. Schooling has also shifted to online schooling, and since then, Jared thinks it has been easier because there is less work to do, but learning at school was better in his opinion. To spend the extra he's had during quarantine, Jared has been going outside on his bike, texting/playing video games with friends, and watching YouTube videos on his phone. Out of all the things he's done so far, Jared had the most fun staying up late and talking to his friends. When going outside, Jared has been taking safety precautions by wearing a mask, and though he hasn't gone to any public areas, he has dropped off a gift to a family friend because their youngest child was badly injured. In this time of quarantine, Jared is just trying to get through and over with being stuck at home.

Interviewer Ruhri Lee

밖이 그리운 지성이

Leon's disappointing quarantine



학교에 가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은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에 다니는 최지성(3학년) 학생은 집에만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배우고 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창의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학교에 갔더라면 이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내용 중 하나인 학교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마치, 벼룩시장처럼 자기의 물건을 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어 최지성 학생은 이런 경험을 못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쉬시는 주말에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뒷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를 열어 소세지와 치킨 등 여러 음식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운동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부모님이 재택근무 때문에 바쁘셔서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태블릿에서 만화책을 즐겨 보는데 이제까지 읽은 만화책 중에는 '빅 네이트', '스누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동화책 읽기를 제일 좋아하지만 태블릿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지성 학생이 원하는 책을 도서관을 통해 마음껏 빌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any students enjoy their time at home because they are given more time. However, that is not the case for Leon Choi, a third-grade student at KSSNJ. Leon replied that he misses school because he cannot hang out with his friends and enjoy the fun and creative program at school. Although the teacher for the program tried to keep the program by holding a group Zoom meeting, Leon said that was not enough. This is because initially, at the program, they were supposed to open a business and sell products to his classmates. However, due to the school closure, Leon could not experience that, which is making him a bit depressed. Leon desperately wants to go back to school so that he can have a fun time at the program. Although Leon cannot go to school, he tries to make his day fun by spending time with his family. He usually rides a bike with his family and plays badminton in the backyard. Also, occasionally, his family has a barbeque party on weekends, where Leon enjoys sausages and chicken. Along with that, he spends his days playing video games and reading e-books. He usually reads comic books on his device, including Big Nate, Snoopy, etc. He also loves to read chapter books, but he said he cannot read any during his time at home, because he cannot rent the chapter books he loves at the local library. So, he hopes that the situation gets better by the summer so that he can do more fun activities.

주어진 시간 활용하기

Taking Advantage of the Given Time

Natalie Kim은 10 살이고 5 학년입니다. 나탈리는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을때 놀라고 슬픈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할때 잘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칭찬을 해줬을때, 그리고 친구들과 비디오로 페이스 타임을 할때면 그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전히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 생활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탈리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디든 갈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집에서 집안 일이 더 많아졌고 이모가 이사를 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색칠 공부, TV 시청,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녀는 비디오 게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나탈리는 친구의 집에 가서 어울릴 수있었습니다. 외출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글쓴이 이루리

Natalie Kim is 10 years old and in 5th grade. Natalie felt surprised, sad, and weird when quarantine started because everything happened so suddenly. But her teacher encourages her by saying "Good job and you're doing well." When she is doing FaceTime with her best friend every day and that helps not feel sad or alone.

Now, since quarantine has continued for a few months, she still feels sad and weird, but she is also bored and tired of quarantine as well. Like many people, Natalie is disappointed because she can't meet with her friends or go anywhere. As for her life at home, nothing much has changed except that she has more chores to do and that her Aunt moved in. Natalie also says that school is worse now because online schooling is difficult to understand for her. But, to make use of the extra time she has during the day, Natalie has been coloring, watching TV, and playing video games. Out of these things, she had the most fun playing video games. During quarantine, Natalie was also able to go to her friend's house and hang out. When going outside, Natalie has worn a mask to make sure she stays safe.

Interviewer Ruhri Lee

진도반 (김레베카 선생님)

종현이의 몸짱 만들기

Zach's Wise Stay-At-Home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동안 자기개발에 힘씁니다. 특히 노종현 학생은 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면서 자기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종현 학생은 운동을 해서 근육과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 매일 한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4시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령도 들고 러닝머신에서 오래 뛴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동안 좀 더 딱 벌어진 어깨와 알통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때에는 근육통도 오고 많이 힘들었다 하는데,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 이를 악물고 계속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 좀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종현 학생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종현 학생은 매일 클라리넷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때문에 선생님과 레슨을 못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집에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노종현 학생의 목표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후 여러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매일 한시간 넘게 연습한다고 합니다. 꼭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노종현 학생, 계속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진

During quarantine, a lot of people use the time to change and improve themselves. Zachary No, a 9th-grade student at KSSNJ, is wisely using his time to follow that principle. Zach answered that since he is given more time, he efficiently utilizes his schedule to work out and build a more fit body. He goes to his basement every day at 4:00 P.M. and lifts weights and runs on a treadmill. He aims to widen his shoulder, increase triceps strength, and improve his vertical height by working on his thigh muscles. When he first started his workout routine, he experienced sore muscles as some exercises were challenging for him. However, he endured all the challenges as he was determined to achieve his goals. He mentioned that listening

to his favorite music during his workout has helped him to focus and endure all the pains. Zach continues to spend at least an hour every day to accomplish his personal goals.

In addition to that, Zach regularly practices his clarinet to keep up his musical skills. Since he cannot have lessons with his private teacher, he felt that he needs to practice diligently at home to retain his amazing clarinet skills. He also has a goal, which is to enhance his clarinet solo pieces, so that he can perform well in the auditions after the COVID-19 crisis. He mentioned that next year he wants to get accepted into different well-known orchestras. Thus, Zach practices different scales, techniques, and a solo piece every day to keep up with his skills.

I hope Zach achieves both of his goals. Good luck, Zach!

Interviewer Youjin Park



집콕생활로 갖게된 선재의 새로운 취미 생활은?

Ethan's Picked Up a New Hobby?

격리생활 동안의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Ethan은 학업을 유지하고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으로 집콕 생활을 하게된 다른 학생들과 Ethan이 다른점이 있다면 그는 여유 시간을 새로운 취미생활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than은 새로운 취미활동을 많이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Ethan의 새로운 취미는 제빵과



요리입니다. Ethan은 동생과 함께 만든 요리나 디저트를 가족과 나누는것을 좋아합니다. 제논에 제친구 Ethan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때 경이로운 요리사 같이 보입니다. 스스로 요리와 제빵에 대한 재능을 알아 낸 후 Ethan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즐겨 하게 되었습니다.

Ethan의 새로운 취미는 또한 그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리는 그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어주고 음식에 대한 애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리 취미생활과 학업을 하면서도 Ethan은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만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Ethan은 배구 스타로서 학교에서 시즌을 뛰지 못하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하기 위해 배구 연습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than은 봉쇄령으로 갑자기 갖게된 여유 시간을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해 채워가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예의 친구입니다.. Ethan의 취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집콕생활에 대한 영감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집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Ethan을 보며 여전히 할 수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노종현

Like any other student in quarantine, Ethan maintains his school work and does all the usual stuff. The difference with Ethan is that with all this spare time available during the lockdown, Ethan has picked up a new activity that he has come to enjoy a lot. Ethan's new hobby is baking and cooking. Ethan, alongside his brother, likes to create different dishes and desserts that he shares with his family. Ethan in my eyes

is considered to be a phenomenal chef when it comes to making delicious food. After figuring out his talent in cooking and baking, Ethan has come to prepare meals for his family which he loves to do. This new hobby for Ethan has also come to bring many positive aspects to his life. Cooking for Ethan has come to bring out his creativeness and it allows him to realize his love for food. With all this cooking and schoolwork, Ethan still finds that time to Facetime with his friends and just hangs out virtually. Although they may be some distance away, being able to see each other through a camera and talking about anything helps them stay in a better mood. Not only that, but Ethan is also a volleyball star and is still exercising so that even during this break from the season, he will still be in peak condition. Ethan really is a prime example of how you should be taking advantage of this new time to maybe start something new. This new hobby should inspire many to see that although you may be stuck inside there are still plenty of things you can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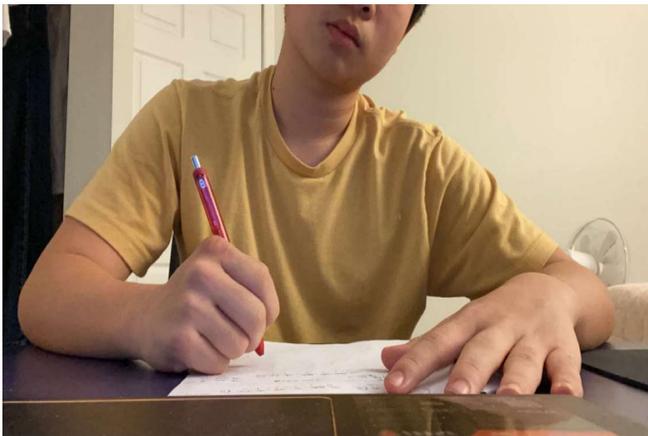


Interviewer Zachary No

연결의 끈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Josh

Josh is Staying Connected

우리 모두가 고립되어 있을때에도 시간을 만들어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그동안 좋아하는 일들의 연결의 끈을 놓지않는것은 중요한 일입니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Josh가 하는 일 입니다. Josh는 열정적으로 농구를 즐기는 학생이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 계속해서 좋아하는 스포츠를 연습하며 play할것입니다..Josh는 농구를 할수있는 농구코트도 없이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열심히 농구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Josh는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함 은 물론 체력 단련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Josh 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가되기 위해서는 110 %의 노력을 기울 여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런 때 Josh 는 오히려 농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Josh는 또한 고립되기 쉬운 이런 시간에도 친구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Josh 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친구와 계속 대화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Josh 는 시간을 만들 어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있 으면 인생에 기쁨을 주는것은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므로

이와 같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osh가 친구든 운동이든 꾸준히 연결점을 잃지않고 관 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COVID-19로 인한 고립의시간을 잘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 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Josh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노종현

Although we may all be in isolation it is important to find the time to stay in touch with friends and stay connected to the things we love most. This is exactly what Josh

is doing. Josh is a dedicated basketball player and no matter what conditions he faces, he will continue to practice and play the sport he loves. Even though Josh is stuck at home with no proper court he makes do. Josh will work on his handles and even work on getting physically stronger as well. Josh has not taken this time to slack off but instead used it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s. He knows that to be the best, he has to put in 110 % effort. So where others may slack off now, this is the chance for him to grow as a basketball player. Josh has taken this time to also stay in touch with friends. Josh finds that to stay in a healthy mindset that you have to



continue talking to your friends. This is why Josh finds the time in his day to Facetime other people and to continue to grow his relationships with his friends. Keeping connections like these are important because having friends by your side will help you get through this time by bringing joy and excitement into your life. As long as Josh keeps his connections he will get

through this COVID-19 in no time. Despite the Coronavirus, we should act like Josh and maintain our relationship with friends.

Interviewer Zachary No

방효신의 슬기로운 정치생활

Ben's Wise Politic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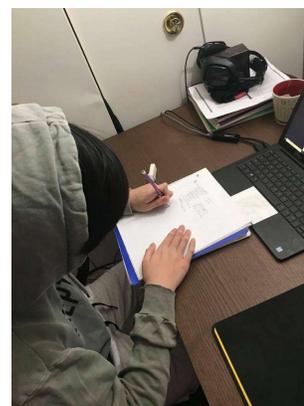
방효신 학생은 저희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학생입니다. 방효신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착한 학생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슬기롭게 보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가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싫기도 합니다. 좋은 부분으로는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그리고 더 많이 연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함께 집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전에는 가족들 모두가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비록 힘들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효신학생에게는 귀하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에는 학교숙제도 하고 정치도 공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치에 관심이 생긴 이유는 이 시기 동안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치를 공부해서 나중에 투표를 할 때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싫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집에 가서 운동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친구들이 올 해 졸업을 하는데, 친구들과 마지막 학년을 못 보내서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고 싶지만,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 시기를 즐기고 싶다고 합니다. 방효신 학생이 슬기로운 생활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빈

Ben Pang is an 11th-grade student at our Korean School who is nice to his friends and to teachers. He seems to be spending his time wisely during this quarantine for his friends and his family, especially now that everyone has a flexible schedule. His opinions on the quarantine are half and half. In some ways, he is positive about it but in some ways, he does not like it. For pros, he emphasized how this period was

an opportunity to get rid of stress and focus more on his family and friends. He now has more chances to talk to his friends through calls and speak to them whenever he wants to. Ben's family began to clean their house, day-by-day, room-by-room. Before the quarantine, everyone in his house was busy and could not really get together to do something together. Now, his whole family can gather and do cleaning together. Although it is a lot of work and gets tiring a lot, Ben loved how his family can talk more during cleaning. He also spends time by himself either doing schoolwork or studying politics. He recently got interested in politics and got curious about actions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during this pandemic. He wants to see how the country is solving this crisis and make good decisions when he is eligible to vote. However, in some ways, he does not like being stuck at home. He would like the option to go outside and meet his friends in real life. Especially, since most of his friends are graduating this year, he is disappointed that he can't spend the rest of the year with them. He also does not like how he can't go to the gym and workout. Just like everyone, he wants to go outside, but at the same time, he would like to continue hi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I hope he stays safe and well during this period.



Interviewer Youbin Park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은이의 요리시간

Stella's Cooking Time with her Grandma

나는 우리
김예은과
예은이는 나처럼
되면 6학년이
자가격리에 대해
예은이는 거기에
우리는 함께
격리시간이 끝날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쿠키와
있습니다.
요리를 아주 잘
그리고 이번에는
물었더니
마지막 field trip
하는 학교 수영장
합니다. 그러나
취소되었고
있는 마지막
다음에도 할 수
예은이는 이번
만나서 놀 수도



가까운 친척들도 만날 수 없고 공원에 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뿐더러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가족 여행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은이는 교회에 가고 교회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립습니다. 아직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가 취소 된 것이 아니고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격리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놀 수 있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예은이는 이번에 베이킹과 쿠키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감사하게도 다음 해에 계획했던

한국학교 진돗개 반
인터뷰를했습니다.
지금 5학년이고 가을이
됩니다. 나는
5가지 질문을 했고
대한 대답을 하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쯤예은이는 쿠키를
싶다는 목표가
예은이가 원할 때는
베이킹연습을 하고
예은이는 할머니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5학년 학생들만
파티를 하고 싶다고
모든 학교 행사가
이번이 5학년에만 할 수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없다고 아쉬워 합니다.
여름에 친구들과
없고 다른 집에 사는

일들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못가지만 교회 친구들과 전화로 얘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글쓴이 박리아

I interviewed a student from english/korean class, Stella Kim. She is in fifth grade going to sixth, like me. I asked her a couple of questions I wrote down, and she and I discussed the questions. Stella answered five questions, which were all about quarantine.

One goal she wanted to achieve by the end of quarantine is improving her cooking skills. Stella practices cooking and baking whenever she can. She aspires to be a great cook like her grandmother. Stella cooks with her grandma when her grandma visits, and that helps her become a better cook. I also asked her what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year. She said that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her graduation, the step-up ceremony at her school, the last field trip of the year, and the fifth grade pool party. All of these events were cancelled, and would probably not be scheduled for another time.

Stella also mentioned that everyone's vacation for the summer was cancelled. Even simple things, like hanging out with friends weren't allowed. Meeting with family members who lived in other homes, and going to the park was also not allowed. She also said she missed going to church, and hanging out with her church friends. After quarantine, Stella hopes that her church retreat will still happen, so she can at least celebrate the end of quarantine with her church friends.

Hopefully Stella is able to keep busy with her baking and cooking. Thankfully, she will be able to do some of the things she listed next summer. Her church friends can call, and maybe it'll make up for not going to church.

Interviewer Leah Park

윤재의 하루 일과

How my brother spends his day



저는 휴교 기간을 보내는 제 동생 이윤재의 일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규칙적인 평일 일정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윤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아침 일곱 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아홉 시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께서 준비한 음식을 먹는 점심 시간까지 친구와 대화를 하고 학교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열두 시에 다시 점심을 먹으러 내려옵니다. 식사를 마친 윤재는 오전 중에 끝내지 못한 학교 과제를 위해 마치기 위해 윗층으로 갑니다. 윤재는 작업을 마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 텔레비전에서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그는 네 시 정도까지 게임을 하는 동안 전화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윤재는 날씨가 좋으면 약 여섯 시가 될 때까지 트램폴린과 배구를 하면서 한 두시간 동안 밖에서 놀입니다. 여섯시나 일곱시에 윤재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윤재는 아홉시까지 휴대 전화나 텔레비전으로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열 시에 잠을 자야 할 때까지 위층으로 올라가 휴대 전화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가 시작된 이후, 윤재는 형과 배구를 더 자주하며 친구와 비디오

게임을 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윤재는 심심할 때 종종 형의 방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에 윤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다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쓴이 이루리

I'm going to introduce my brother, Ryan Lee's daily routine during this quarantine period. Ryan is in sixth grade. He had a difficult time when the schools were closed but has now adapted to the current schedule during the weekdays. Yoonjae wakes up at around seven o'clock in the morning and walks downstairs to get breakfast. After eating, it is around nine o'clock, and he begins his online school. He often facetimes his friend to talk and complete school work together until lunchtime when he eats the food that his mother has prepared for him. He then comes down again to eat lunch at noon. After he finishes eating, Yoonjae goes upstairs to complete any of the school work he has not done. After finishing his work, Yoonjae goes downstairs to play video games on the television. He talks with his friends on the phone while playing games until around four o'clock. Then, Yoonjae plays outside on the trampoline and volleyball for an hour or two until it is around six o'clock. At six or seven o'clock, Yoonjae eats dinner with either his mom and his brother, or his entire family. Then Yoonjae will play video games on his phone or the television until nine o'clock. Afterward, he will go upstairs and watch youtube videos on his phone until he has to sleep at ten o'clock. Since self-isolation has started, Yoonjae has also played volleyball with his older brother more often and has more time to play video games with his friends. Yoonjae also enjoys walking into his brother's room and distracting him from his schoolwork. Above all, his favorite part of quarantine is more time to play games like pokemon, fortnite, and clash of clans. I think he's going to be a famous professional gamer.

Interviewer Ruhri Lee

돌고래반 (장혜정 선생님)

가족 여행을 기다리며

Waiting for Family Vacation

하영이는 8학년이며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스케줄도 나눠져서 하루에 모든 수업을 다 듣지 않습니다. 숙제는 쉬워졌지만 자가 격리 전 보다는 숙제가 많아졌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을 못 만나는게 너무 불편하고 무엇보다 졸업 여행을 못가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평소에는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시기입니다. 집에 지내는 동안 쿠키를 굽고, 가족들과 바닷가로 것은 그녀에게 기분 전환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이 빨리 발견되어 자가격리가 끝나고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글쓴이 이루리

Judith Lee is in 8th grade and attends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Currently during quarantine, she is taking online classes with no class on Fridays. Her online schooling schedule is also divided, so she doesn't have to take all of her classes all in one day. Since the start of this distance learning, Judith thinks that there is a lot more homework than before, but that it's also a lot easier. For Judith, not seeing her friends makes her uncomfortable and she is disappointed that quarantine has made it difficult to see them. She is also very disappointed that her middle school graduation trip and family's travel plans were canceled because of quarantine. Judith says it is upsetting that this is a time



not only to fear traveling, but also just going out to buy daily necessities from the store. In this time, the most memorable things that Judith has done so far that has made her feel better has been baking cookies and going to the beach with her family. She thinks that the treatment for coronavirus will soon be discovered and quarantine will end so that she will be able to go back to school.



Interviewer Ruhri Lee

나의 집콕 생활을 통해 얻은 좋은 점

My Daily Life in Quarantine



미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뜻밖의 학교 휴교령을 맞아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도 느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학교 가지 않는 것에 기쁘고 마음이 들떴지만 이 시간이 오래 이어지면서 지루함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거의 비슷한 스케줄에 맞추어 하루를 보내지만 이 시간을 불평하기보다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집콕 생활이 즐거워질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두 달을 집에서 지내면서 좋았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이 매끼 식사를 같이 하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나신 아빠께서 자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엄마,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여유있게 대화를 할 수 있어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특별히 동생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습니다. 함께 자전거 타기, 영화 보기,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 하기, 빵 굽기, 배구와 집 밖에서 드라이브웨이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길 바닥에 썼던 희망을 주는 글 문구를 보고 집 주변에 산책하시는 이웃들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세번째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영상으로 함께 영화 감상과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루해질 수 있는 집콕 일상이지만, 그 곳에서 좋은 점을 찾으면 집콕 생활이 그저 답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생겨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보냈던 소중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잘 보내고 싶습니다.

The corona virus in the United States led to an unexpected school closure, which led to living at home. At first, I was happy and excited about not going to school, but as time went on, I began to feel bored. I spend the day almost on the same schedule every day, but I thought that if I kept a positive mindset and didn't complain about staying at home, I would be able to enjoy it more.



For the past two months, I've done nothing but stay at home, and there were lots of things that I enjoyed from it.

First, I was very grateful that my family and I could sit down together and share a meal. We never had these opportunities as both of my parents worked, and both my sister and I were always busy. Both of my parents, who are excellent cooks, prepare meals for the whole family to enjoy. During our times at the table, we were able to share fun conversations and talk about our day.



Secondly, this quarantine has allowed me to have time to play with my sister. We've biked together, watched movies, baked, played volleyball and drew chalk on the driveway outside the house. Together, we wrote hopeful and encouraging messages with some of our neighbors who took pictures as they walked by. In addition, I learned the true value of my friends. So, I hand wrote letters and sent them to a few of my closest friends. I also learned more

about how to manage my time. Everyday, I try not to let any time go to waste and try to prevent procrastination.

This is my life in quarantine, which got boring quite frequently. However, realizing that there is a good side to this, I found it more meaningful. I genuinely hope for a vaccine that will allow everyone to go back to their normal lives. Even if I do go back to school someday, I hope that the precious times that I shared with my family will continue and I want to cherish all of the times that my friends and I spend together in the future.

Interviewer Joelle Kang

Joelle이 자가격리 기간동안 보내는 일반적인 하루

What Joelle Does in a Typical Day During Lockdown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보아도 두려운 기간에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렇지만 민희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민희가 어떻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지 옮겨보았습니다. 민희는 8-9시에 스트레칭 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 일을 시작 하기 전에 강아지에게 먹이를 줍니다. 민희는 열심히 학업을 하는 학생이며 더 어려운 수업을 먼저 시작하고 쉬운 수업을 그 후에 합니다. 따라서, 영어와



바이오로 시작하고 그후에 수학을 합니다. 민희는 학업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후 1 시경에 나머지 학업을 마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잠시 쉬게 됩니다. 민희는 앞으로 보게될 SAT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학업을 모두 마치고 난 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과일을 먹습니다. 또 체력 강화를 위해서 배구를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합니다. 민희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을 충전해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맛있는

집밥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엄마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어 실력이 줄지 않도록 노력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민희는 또한 음악을 좋아하기에 바이올린 연습도 합니다. 음식이 다 소화된 저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하루를 끝마치며 샤워를 하고 밤 12 시쯤 취침을 합니다. 민희의 하루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루종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알차게 해낼수 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글쓴이 노종현

It is very hard to stay focused in such a scary time in our history but somehow Joelle is able to do it all. Here is what Joelle does each and every day stuck in quarantine. Joelle starts her day at around 8-9 ish with some stretches and a morning workout to get her ready for the day. She'll then have some breakfast with her family and feed the dogs before going off to start some school work. Joelle is a dedicated student and will start off by doing the harder classes and work her way to easier ones. Therefore she starts with English and bio and makes her way over to math.

The school work comes fairly easy and quick to her, she just finds it very time-consuming. At around 1 p.m she'll have lunch and a quick break before finishing off the rest of her school work. Joelle will then prepare herself for her future by studying for her SAT. After finishing the rest of her studies, she'll then have some fruit while watching Netflix or Youtube. To keep her immune system up, she'll either play volleyball, walk her dog, or go for a jog. She likes to cycle through different things in order to keep things fresh. When she returns, she'll prepare the table for dinner. After a delicious home-cooked meal, she'll do some Korean review with her mom so that her Korean skills don't weaken. Joelle is also musically inclined, so she'll do some violin practice right after. By then all the food has digested, so she will exercise in order for her to stay healthy. After a nice shower to end the day she will sleep around 12 a.m. Not only is Joelle's day complex, but it shows how much one can accomplish as long as they put the necessary dedication in.



Interviewer Zachary No

격리 기간중 Joanna의 일일 계획표

Joanna's daily schedule during quarantine

많은 새로운 일들이 격리 기간중 일어나지는 않지만 격리 기간을 보통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만도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채린이의 요즘 일상이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채린이는 학업을 빨리 마치는 것을 좋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건너 뛰고 8시에 학업을 시작하고 12:15까지 학업에 시간을 보냅니다. 집중하고 학업을 마친 후 12시 15 분부터 1 시까 지 점심을 먹으며 가족과 대화를 나눕니다. 점 심 식사 직후 채린이는 오후 1 시부 터 오후 3 시 까지



Netflix 또는 Tik Tok을 시청합니다. 채린이는 학교에서 재능있는 배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지금도 학교를 다닐 때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 수준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리힘을 키우기 위해 자전거 를 타거나 오후 3시에서 5 시까 지 배구를 연습을 합니다. 그 후, 몸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후 5 시부 터 오후 6 시까 지 운동을합니다. 채린이는 운동을하면서 운동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로 땀을 씻고어내고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하거나 오후 6시 30 분부터 오후 8 시 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8 시부 터 9 시까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채린이는 저녁 식사 직후 씻고 취침 준비를 합니다. 격리 시간동안 채린이는 언니와 동생과 한 방에서 게임을하거나 Netflix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채린이는 매일 보통의 일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상활은 끔찍한 시대에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글쓴이 노종현

A lot of new things don't happen that often in lockdown, but maintaining a routine will help you stay on track for when things return to normal. So here's the schedule of Joanna Shin. Joanna likes to get things done, so she skips breakfast and starts her schoolwork at 8 and goes until 12:15. After staying focused and getting her work done, she eats lunch from 12:15 to 1 while she chats with her family. Right after lunch, Joanna will either watch Netflix or TikTok from 1 p.m to 3 p.m. Since Joanna is a talented volleyball player, she has to stay healthy and maintain her fitness level. This means she will either bike to strengthen her legs or just practice volleyball from 3 p.m to 5 p.m. After that, to maintain her physical physique she will workout right



after from 5 p.m to 6 p.m. Joanna finds that working out helps her cope with some stress she may have. She'll then take a shower to wash the sweat off and have some nice relaxation time. Then right after, she'll have some free time to read a book, do some chores, or even learn something new from 6:30 p.m to 8 p.m. She'll then have dinner from 8-9 p.m with her family. Right after dinner she'll wash her face and brush her teeth. With all the isolation, Joanna likes to spend time with her two other sisters by either playing some games or watching Netflix again, in the

same room with each other. Finally, at 12 a.m, she wraps things up and gets ready to go to bed. Such a simple routine but one of the best ones to occupy yourself in such a terrible period in time.

Interviewer Zachary No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Thankful for All the Small Pleasures of Daily Lif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루리 입니다. Conestoga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으며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투정부리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단지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학교 생활이 바빠서 미뤄두었던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실에서 내 방으로 옮겨 졌기 때문에 배우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학교의 원격 학습 플랫폼인 Schoology와 화상 통화를 사용하여 선생님과 의사 소통하고 조정 된 커리큘럼과 함께 학습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 학습에 익숙해지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과 끝나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코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두고 완료한 것은 일일이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약 2 개월이 지난 지금은, 나 자신에 딱 맞는 훌륭하고 균일한 원격 학습 일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원격 학습 일정이 완벽하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가족들과 밖에 나가서 자주 걷거나 조깅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신선한 공기, 지저귀는 새소리, 내 얼굴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땅에 떨어지는 소나기를 보는 것 또한 나를 재충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여기에 있었지만, 집콕 생활이 준 여유 덕분에 이제야 자연이 주는 감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Crash Landing on You)”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하시고, 나 또한 학교가 끝난 후에 스포츠와 다른 활동들을 하느라 평소에는 같이 앉아서 여유있게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본 후에 엄마와 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순간에 함께 웃고 즐거워 한 것이 집콕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억양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북한말을 찾아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바퀴가 두개 달린 스케이트 보드 RipStik을 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도로 위를 자유롭게 타고 있으면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과 내 발 아래 느껴지는 속도가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느낌과 같이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Ripstik을 타고 가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 힘든 시기도 결국은 끝날 것입니다.

글쓴이 이루리

Hello, my name is Ruhri Lee, I attend Conestoga High School and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During this unfortunate time, the lives of many people have changed, including those in my household.

I, too, am trying to make the best out of this period of time because I see quarantine as an opportunity to grow and develop myself rather than sulking and feeling unable to do anything. Everyone has the same amount of time so it's only a matter of how they decide what they will invest their time into. That's why I am continuing to work hard in school through virtual learning and spending my time doing activities that were long set aside because of my busy school life prior to quarantine.

Because school has shifted from the classroom to my own bedroom, the learning experience is very limited, but using Schoology, my school's virtual learning platform, and video calls I can still communicate with my teachers and learn alongside the adjusted curriculum. At first, I had a little trouble getting used to virtual learning because it was difficult to keep track of the things I did and didn't finish. I was able to fix this because I started to write everything I needed to do for my courses, down in a notebook and check them off as I finished them. After

around 2 months, now, of virtual learning, I think I've created a good, uniform school schedule for myself. I now feel comfortable with studying for school at a distance.

During this time at home, I've been able to run/walk outside with my family members very often. I found this very refreshing because in the time I spent outside, I didn't have to think about anything and I could just take in the beauty of nature: the smell of fresh air, the sounds of the birds chirping, the golden sunlight beaming on my face, the sight of heavy rain pattering on the ground. All these things were always here, but I only now took notice of how pleasing nature could be thanks to the available time quarantine makes.

This available time also allowed me to start watching Korean drama "Crash Landing on You" with my mom. My mother works, and I also play sports and other activities after school, so I usually didn't have time to sit down and watch a drama. This was probably my favorite part about being in quarantine so far because, after watching the dramas, my mom and I would talk on and on about our favorite parts and laugh together at the funny moments. Plus, I think I've significantly improved my Korean because I watched the dramas and kept reenacting my favorite scenes. I even had fun learning how to talk in a North Korean accent and picking up on some North Korean phrases.

I also had fun riding my RipStik, which is a two-wheeled skateboard. I really enjoyed doing this because it felt so exhilarating and free to ride down the road and feel the wind blowing in my face and the speed picking up under my feet. It reminded me that life will keep moving forward and that quarantine will eventually end.

Interviewer Ruhri Lee



Jaclyn이 봉쇄 시간을 활용하는 법

How Jaclyn Takes Advantage of Time

COVID 19는 많은 유해한 건강 관련 사례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COVID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에서 생활할 때 갖는 좋은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Jaclyn의 경우가 그런데요. 늘 공부와 수면 시간이 부족했던 Jaclyn은 요즘 많은 시간을 공부와 부족했던 수면을 채우며 보내고 있습니다. 11학년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Jaclyn은 봉쇄령으로 갑자기 집에서 보내게 된 시간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Jaclyn은 항상 최선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이 유행성 바이러스로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aclyn은 늘 부족했던 수면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알뜰히 쪼개어 사용해 모든 학교 숙제와 공부를 끝내고 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학업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Jaclyn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목표와 포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Jaclyn의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본보기로 삼아서 COVID 19가 우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노종현

COVID 19 took the world by storm with many harmful health-related cases. There have been many struggles due to COVID 19 but with this time at home, there have also been some benefits. In Jaclyn's case, this consists of a lot of sleeping and studying. Jaclyn is a hard-working junior and with this newfound time, she has taken the liberty to stay strong on her path of education. As many know, the junior year is a difficult time educationally and mentally with massive amounts of work and stress. Although this may be the case, Jaclyn still studies and puts in the time to grow

academically. Jaclyn has always strived to be great, and she will not let this pandemic intervene with that. Instead, Jaclyn uses this crisis to motivate herself. Not only that, but Jaclyn has also taken this time to catch up on sleep. Now that Jaclyn has more time on her hands, she has the freedom to split up her work throughout the day and be able to get a lot more sleep. Due to this, Jaclyn can fall asleep or wake up when she wants to. Many at a point like this would be unmotivated to keep up their studies but Jaclyn shows that no matter what conditions one may be in, you can continue to pursue your goals and aspirations.

Everyone should take a page out of Jaclyn's book and realize that this COVID 19 should not stop us from achieving the goals we want in our lives.



Interviewer Zachary No

댄싱퀸 수연

Dancing Queen Amanda's Wise-Stay-At Home

어떤 집콕생활이 슬기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부뉴저지한국학교에 다니는 김수연 학생의 집 생활이 저는 슬기로운 생활의 예시가 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학생은 집콕생활동안 매일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댄스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빠짐없이 한다고 합니다. 김수연 학생은 본교의 자랑인 무용팀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쉬고 있는동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를 도와 밥상을 차리면서,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있는동안 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같이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더욱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좋은점도 있지만 김수연 학생은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 다시 학교에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글쓴이 박유진

How can one's quarantine life be considered a wise stay at home? An 11th-grade student at KSSNJ, Amanda Kim, is leading the exemplary quarantine life. Amanda mentioned that since the start of the quarantine life, she has been mostly spending time on dancing. She has been working on her flexibility for dance by stretching and exercising regularly. She said she will continue to practice dancing to maintain and improve her dancing skills. As one of the leading traditional dancers for our Korean school, she has shown her talents in numerous dance competitions held in different places. So, when the situation gets better, and schools open again, Amanda wants

to perform well and represent our school in various competitions. Amanda continues to practice at home by herself to achieve that goal after the virus dies out.



To add to that, Amanda has been spending more time with her family, and she feels a lot closer to her family. Amanda has been staying at her home with her parents and sister due to the coronavirus crisis. As a result, Amanda was able to help her mom out with cooking meals for the family. By helping her mom, Amanda said she was able to understand all the work her mom does for the family at home. Amanda also thinks that one of the significant benefits of the COVID-19 is that she has been able to hang out more with her sister. Amanda mentioned that she has been able to talk more with her sister and have fun together by playing games and watching dramas together. Although there are benefits of quarantine life, she hopes to go back to school soon.

Interviewer Youjin Park

강인한 여장군 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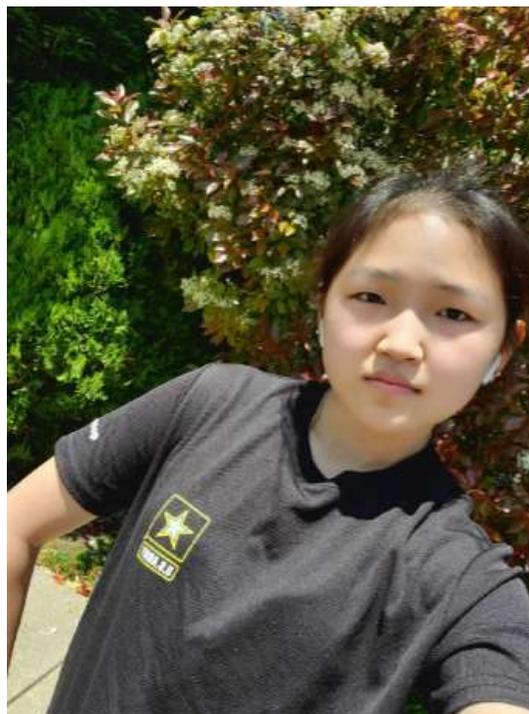
Alissa's activity packed day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멈추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뉴저지한국학교에 다니는 김수진 학생의 삶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학생은 집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학생은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틱톡 영상도 만들면서 집콕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게 설명을 하자면, 김수진 학생은 코로나 기간동안 하루 빠짐없이 밖에 나가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뛰면서 체력도 키우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김수진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뛰게된 계기는 작년에 군대 캠프를 다녀오고 부터라고 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몸을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시기동안 열심히 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쉬면서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

한다고 합니다. 김수진 학생은 12학년으로서 졸업과 12학년 활동들을 못해서 많이 아쉽고 속상하다 합니다. 하지만 게임과 친구들과 문자로 소통하면서 삶의 안정과 쉼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가족들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글쓴이 박유진

The quarantine stops everyone from their healthy life and limits the activities one can do. However, for Alissa Kim, a 12th-grade student at KSSNJ, that is not the case. Alissa Kim has been utilizing her time at home wisely to do many activities. Some of the examples of what she did at home are watching movies, working out, running, playing on Xbox, making Tik Tok videos, talking with her family, etc. To point out some of the activities, Alissa has been running every day since the quarantine began. Alissa mentioned that she loves to run since running keeps her healthy and increases her stamina. Last year, Alissa went to military training during the summer, and she loves to run since then. As a result, when the school closure was announced, with plenty of time given to her, she decided to run around her neighborhood to keep her body in shape. In addition, she has been relieving her school stress by relaxing throughout the days. As a senior, she is disappointed that she cannot experience graduation and other senior events, and she wants to go back to school. However, through playing games, talking to her friends, and watching movies, she has been able to relax and enjoy her life. Alissa said that although her life at home has made her stay away from her friends, she has been able to keep her friendships through texting and calling her friends. She also said that staying with her family has made her feel closer to her family.



Interviewer Youjin Park

다큐/포럼반 (윤기석 선생님)

스트레스 프리

Stress-Free

저희 학교에 재학중인 김세훈 학생은 생활방역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제 이번 학기를 닫으므로 인해 자유시간이 늘어났고 그는 자유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그가 학기중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김세훈 학생은 건강해지기 위해 매일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탑니다. 친구들과 함께 탈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즐기고, 스트레스도 풀기 위해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도 같이 합니다. 가끔은 가족들과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추러스와 쿠키들을 만들었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엄마와 함께한 바이올린 연주를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슨을 못 가는 대신 연습하고 엄마와 화목하게 연주하는 것이 멋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화씨 451” 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결말을 어서 빨리 보고 싶어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 말씀을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세훈 학생은 슬기롭고, 즐겁고, 바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생활을 계속 실천해 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빈

Sehoon has been spending his time wisely during his quarantine. Now that school is closed for the remainder of the school year, Sehoon is enjoying his free time. Although he has online schoolwork to do, that does not stop him from doing what

he couldn't do during the school year. In order to stay healthy, he goes outside every day to bike around his town. He can not bike with his friends right now, but he stays in touch with them with virtual technologies. He facetimes his friend group to share what they have been doing at



home. Sehoon also plays a video game called Minecraft to entertain himself. Sometimes, he bakes with his family as he has baked churros and cookies so far. What I thought was most impressive was playing the violin with his mom and posting on Youtube. I thought it was a good way to practice the violin during this time, but it was also nice to see him playing with his mom. At the end of his day, he finishes by reading books. He is currently reading Fahrenheit 451 and he can't wait to see the ending of the book. Ahn Chang Ho once said, "If you do not read a book for one day, the spikes will grow on the tongue." and I think he is doing well with his reading. Overall, I think he is living a wise, fun, and right life during this quarantine. I hope he continues his good habits during this period.

Interviewer Youbin Park

신지은의 트로트 삼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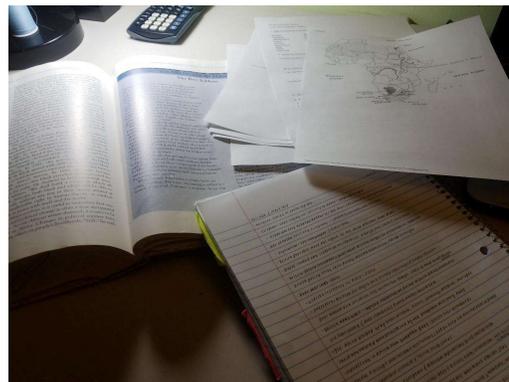
Juliana's Addiction to Trot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신지은 학생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모두 다 성실하고 인사성 밝은 학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상을 했듯이, 집콕생활 동안 그녀의 성격답게 생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학교에 있듯이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주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개념을 배우고 과제들로 더욱더 배워 나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도 유지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해 나갑니다. 학교과제들이 끝나면, 학기중에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것을 합니다. 며칠전에는 아빠와 함께 탕수육을 만들며 소스와 튀김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식당이 닫아서 밖에 음식이 그리웠는데,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논다고 합니다. 밖에서 배구나 축구를 하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빠중에 한 명이 내년이면 대학에 가는데, 떠나기 전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옛날 드라마나 티비 프로그램들을 정주행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위로와 웃음을 받아, 트로트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정주행으로 다 본 뒤에도, '사랑의 콜센타', '뽕송아학당' 등등의 트롯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고 합니다. 신지은 학생은 자신의 시간을 슬기롭게 가족들과, 가끔은 혼자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즐거운 생활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빈

When everyone in the Korean school thinks of Juliana, I have no doubt that everyone will think of her as a diligent and hardworking girl who is kind to every adult in the Korean school. As expected, during this quarantine, she was living a lifestyle that exactly matched her personality. She was working hard during the day as if she was studying in school. She



She would diligently work on her assignments and learn through online lessons that her teachers give to her. By doing so, she can keep her good grades and prepare for next year, especially since a lot of subjects require the learnings from last year. When she is done with her work, she would use her free time for things that she wanted to do during school days but couldn't do. As many people do during this time, she started to learn to cook. Recently, she has helped her dad to make Tang-soo-yook which she learned how to create a sauce and fried pork. She said that since many Korean restaurants are closed during this time, it was nice to eat foods that were sold mostly in Korean restaurants. Later, she spent her time with her brothers, which she did not have time to do during school days. They played volleyball and football together which became a great family bonding time. One of his brothers is now going to college, so Juliana wants to especially spend more time with him before he leaves. At the end of the day, she would watch old dramas or TV shows that she watched before but wanted to watch again. She is currently watching "My Love from the Star" and she loved to bring the old memories back into her mind. Additionally, she is also watching a trot audition program called "Tomorrow is Mr. Trot" with her parents and has received comfort and laughter through the show. Even after finishing the show, she continued her trot love by



watching other trot programs such as "Romantic Call Centre" and "Bbonsunga School". Juliana is spending her time wisely with her family and by herself and I hope she continues to use this time wisely!

이웃 친구 심영서의 성실한 집콕 일상

Eva's Consecutive Life in Quarantine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외출을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매일 같은 하루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때로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이어진 집콕 생활속에서 가까이 사는 친구 영서의 일상을 물어 보았습니다. 영서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아침마다 스쿨 버스를 타며 만나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제가 사는 미국 뉴저지에 비상 경계령이 시작되면서 가까운 이웃조차도 못 만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나마 글로써 영서의 일상을 쓰면서 영서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영서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꾸준히 알찬 집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를 우선으로 여기는 영서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바로 숙제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쉴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휴식을 가지고 나머지 숙제를 마칩니다. 숙제 후 운동, 클라리넷 악기 연습 등 학교 다닐 때처럼 오후와 저녁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영서는 혼자 그림 그리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영서에게도 여동생이 있는데 함께 집에 있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온 영서는 늘 성실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입니다. 집콕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를 열심히 잘 보내는 친구가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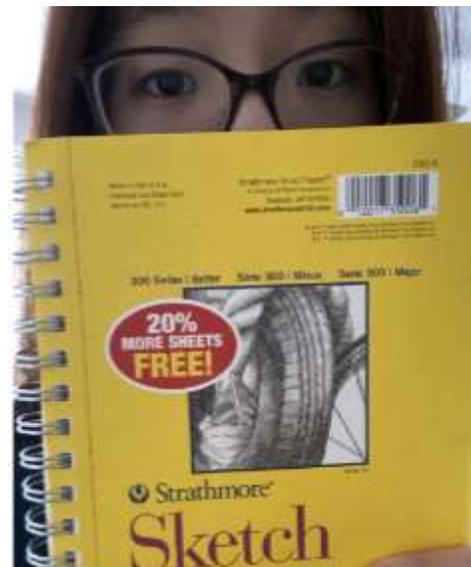
우리는 학생이라서 매일 학교 공부와 숙제가 있기 때문에 평범해보이는 똑같은 스케줄이지만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기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보고 싶은 이웃 친구 영서를 아침마다 스쿨 버스 타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강민희

There are many things that people cannot do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coronavirus. First, I couldn't go out, I couldn't meet people, and I also gave up many things I wanted to do. On some days, I wonder what goes on in the lives of other people in this difficult situation. So, I asked about the daily life of a friend, Eva, who lives close to my house. I originally met her on the bus to school, where we sat together everyday. However, ever since Governor Murphy announced that all New Jersey schools were cancelled, where I live, it was a pity that I couldn't even meet my neighbors. While writing about this interview, I reminisced over the fun times that she and I had together.

Eva lives a regular life at home with a relatively set itinerary. She, who prioritizes school homework, starts her work right after a brief breakfast. She takes frequent breaks as it is difficult to consecutively do homework for many hours at a time. During these breaks, she finds herself going on her phone, watching Youtube, eating a snack or drawing. After she finishes her daily schoolwork, she dedicates her afternoons to exercising, going for a jog or at home, making sure that she maintains her health. Occasionally, if she has time to spare, she and her family spend time playing games together. Eva, who is artistically talented, likes to spend her time drawing. Similar to me, Eva has a younger sister, and she says they became closer because she spends more time together while at home. Eva, who has been one of my closest friends since middle school, is a person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do her best in her work. I'm very happy to be able to call her my friend.



As we are all students, we are inclined to complete our schoolwork everyday, as a replacement to actual school. Continuing with this routine everyday, I believe that it has taught me self-discipline and independence. I hope that the vaccine and treatment will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 can meet my friends again. Especially one, that I see every morning on the bus to school, like Eva.

Interviewer Joelle Kang

승현의 소중한 시트콤

Olivia's Precious Sitcom

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하고 계속 집에 있을 때부터, 제 기분이 정말 좋아진 거 같습니다. 심심하고 처박혀 있는 게 싫다며 하루하루 지루하게 보내는 사람들과 달리,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과연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질리지 않게 어떻게 하루하루 보냈냐고요? 그건 바로...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나 재미있고 시간 때울 수 있는 것을 안 보면서 매일매일 지겹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아주 자주 보는 미국 시트콤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더 오피스라는 시트콤

드라마입니다. 더 오피스는 코미디를 좋아하고 가벼운 내용 때문에 부담 없이 즐겨 볼 수 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제목처럼 단순합니다: 종이 회사에서 마이클 스콧 매니저와 회사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보여줍니다. 저는 모든 에피소드를 즐겨 봤지만, 제가 특히 엄청나게 좋아했던 화는 “부즈 크루즈”입니다. 이 화는 마이클 스콧과 회사원들이 간만에 수련회를 크루즈 안에 보내며, 술 마시면서 춤추고 노는 거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 자체가 웃기고 재미있었지만, 거기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사원 짐 헬퍼트가 다른 직원 팸 비즐리한테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 사실을 매니저한테 밝힙니다. 매니저 마이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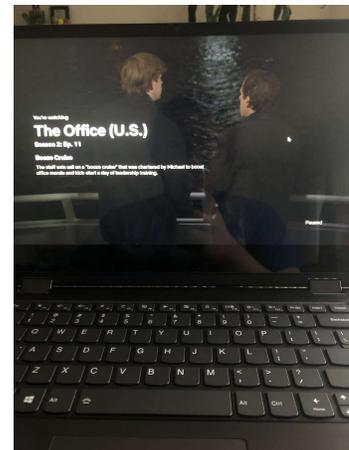


회사에서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짐 할퍼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줍니다. 문제는, 짐의 짝사랑 팸은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해서 짐은 그녀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태 회사에서 친한 친구 사이밖에 되지 않고 짐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팸이 웃기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팸을 좋아하면, 포기하지 마... 약혼은 결혼이 아니야.” 이런 말을 제가 듣는 순간 마이클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매니저로서 심플하지만 강한 조언을 자기 직원에게 말해주니까 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 쇼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도 먹으면서 봤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트콤을 집에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받은 스트레스도 스르르 없어지게 해서, 더 오피스한테 고마울 뿐입니다.

글쓴이 배승현

Since Corona Virus started and I had to keep staying home, my mood has been great. Unlike other people who are bored and feel stuck inside, and spend every day with boredom, I loved being at home so much that I didn't know what to do. Exactly, how did I spend every day without getting exhausted being at home? That is just... watching TV. Honestly speaking, how can people not watch such an entertaining and time-consuming thing and say that they're tired of it, daily. I have no clue about that.

Anyway, I strongly recommend an American sitcom to everyone that I watch very often. It is a sitcom drama from Netflix called The Office. I recommend The Office to those who like comedy and like to enjoyably watch without pressure because of how simple the story is. The plot is simple like the title: it's about how the manager, Michael Scott, and the coworkers of a paper company go to work and show how some interesting events happen. I enjoy watching all the episodes, but my favorite one is the “Booze Cruise.” This episode shows that Michael Scott and his coworkers are having a retreat on the cruise, by drinking, dancing, and having fun. That episode, in general, was funny and fun to watch, but there's a scene t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o me. Jim Halpert, an employee, has feelings for another employee, Pam Beesly, and he reveals that truth to the manager. Michael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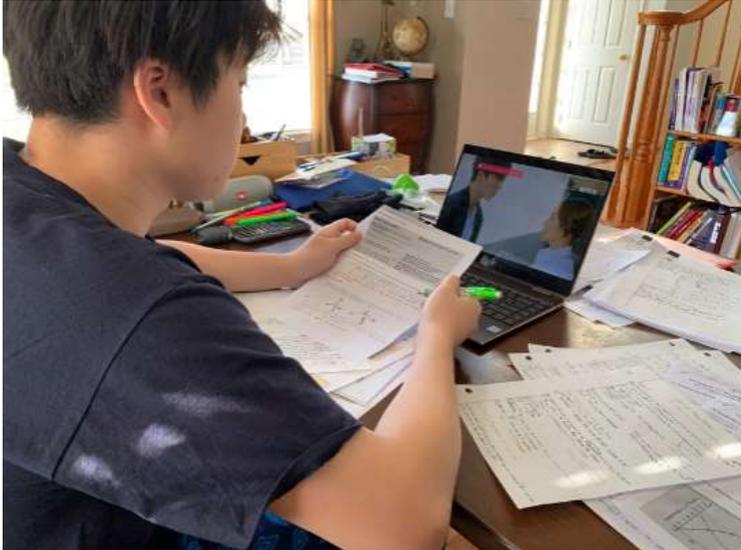


manager is known to be a stupid and silly character but he listens to what Jim says in a serious way. The problem is, Jim's crush, Pam, is engaged to another man so Jim can not actually make a move on her. This whole time, they were only close friends and Jim only waited. He also mentions how Pam is funny and how she's a warm person to him. Michael, then, has said, "Well, if you like her so much, don't give up... Engaged ain't married." When I heard these words I started to like Michael even more. As a manager, he gave a simple but strong piece of advice to his coworker and it was great to watch that scene. I watched this show for a month, during the morning, afternoon, and night, and even when I'm eating. To me, it's a very special sitcom that I enjoyably watched, and I'm only thankful for The Office for taking away all my stress.

Interviewer Olivia Pae

뮤지션 서정환의 집콕생활

Justin's Musical Quarantine Life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정환 학생은 집에서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 학교에서 내주는 온라인 과제들 때문에 주로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교 온라인 미팅에 참여해서 학교에서처럼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5월달에 보는 AP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해가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정환 학생의 노력이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서정환 학생은 또한 집에서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시험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자주 가족들과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저녁에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이태원 클라쓰", "킹덤", "하이에나", "명불허전" 등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서정환 학생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앞으로도 가족들과 더욱 더 많은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가족들과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골프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치는게 즐겁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겁게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서정환 학생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진

An 11th-grade student at KSSNJ, Justin Seo, is living an occupied life at home. Although he does not go to school, he receives a lot of online assignments from

school. He mentioned that he spends most of his days completing online homework and learning different subjects. He regularly joins school Zoom meetings and learns new information, as if he were at school. With the AP exams coming up, he is spending his days studying for the exam and solving a lot of sample problems. He said that preparing for the AP exams is a bit challenging, but he is managing his time well and studying efficiently. He continues to study and work hard to achieve his goal of receiving good scores on his exams. I hope his work pays off.



Although he is leading a busy life currently, he also tries to relieve stress by having fun with his family. He said that he usually plays Go-Stop with his family and watches k-dramas with his family. Regularly, at night, his family gathers up in the living room and watches k-dramas together on Netflix. He said so far, he saw Itaewon Class, Kingdom, Hyena, and Live Up to Your Name. He loves to stay in touch with Korean culture, so he is looking forward to watching more k-dramas with his family. He also went golfing with his family recently. As a varsity golf player for his school, he enjoys playing golf with the family. As a result, he went to a nearby golf course with his family to have fun. They practiced social distancing by staying away from other golfers and still had fun time golfing. I hope Justin continues to have fun with his family.

Interviewer Youjin Park



도웅이의 교육적이고 유익한 집콕생활

Josh's educational and valuable quarantine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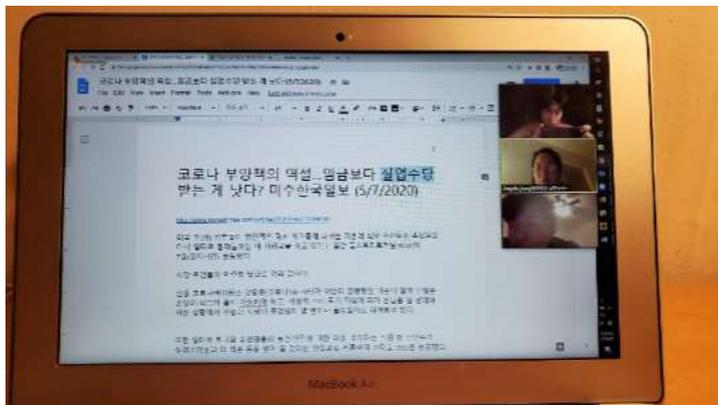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11학년 윤도웅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자기의 생활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윤도웅 학생은 북 실력자로서 본교에서 인턴교사로 모듬북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으면서, 여러 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안했을때, 윤도웅 인턴교사는 앞장서서 교육 영상들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북과 채가 없어서 연필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8주 분량의 교육영상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사들을 읽으면서 경제 용어나 심화 단어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사를 읽으면서 모국인 대한민국이 방역강국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윤도웅 인턴 교사는 계속해서 모국어를 배워서 이 기간동안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한국어도 배우고 모듬북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 박유진

The COVID-19 has reshaped everyone's lives, which caused most of the people to adjust their lifestyles. This was not an exception to Josh Yoon, an 11th-grade student at KSSNJ, who also serves as an intern teacher. As a professional Korean percussion player, he has taught a beginner percussion class back at school. However, due to

school closure caused by the pandemic, he could not teach his class for a few weeks. So, when the Korean school recommended online class, Josh took the lead and started creating videos for his students. He usually creates one video per week and teaches the class using his pencils or pens as sticks. So far, Josh has created videos for 8 weeks, and he is looking forward to creating more videos to stay in touch with his students. He said that the process of creating lesson videos are challenging, but as an intern teacher, he feels obligated to teach his students at home. In addition to that, he regularly has Korean lessons with his mom, who is also the vice principal of KSSNJ. Josh mentioned that he has analyzed different Korean news articles to understand business and advanced Korean terms. By reading various articles, his Korean has improved, and he was able to acquire knowledge about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roficiently fighting against the COVID-19. Although he sometimes does not want to spend an hour to learn Korean, he feels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his mother tongue, and he continues to learn Korean with his mom. He hopes that the situation gets better so that he can go back to Korean school to learn and teach other students.



Interviewer Youjin Park

온유의 가족을 생각하는 생활

Anna's family filled life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취재를 할 때 이 학생이 빠지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장온유로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온유 학생은 지금 이 시기를 가족들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는 좋은 딸, 동생 한테는 좋은 누나가 되주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고등학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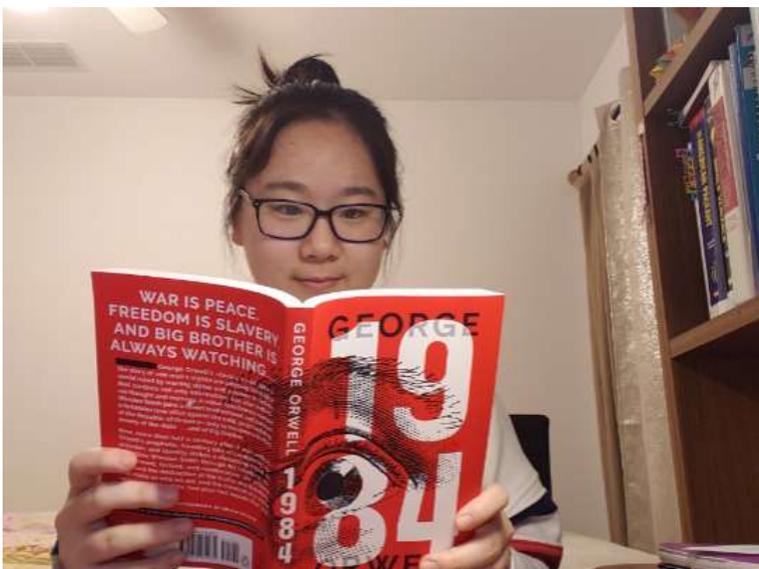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AP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들의 미소가 그녀를 웃게 해주고 힘을 준다고 합니다. 온유 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다들 일상에 바빠서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 모두 한 식탁에 둘러 앉아 같이 밥을 먹고 얘기도 하며 웃을 수 있어서 온유는 행복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드라마를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넷플릭스나 다른 티비 플랫폼으로 혼자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온유 학생 가족들은 같이 보면서 취미와 웃음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마더스 데이였는데, 엄마를 위해 아침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엄마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기 위해 선물도 준비하며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장온유 학생의 즐거운 가족생활을 응원합니다!

글쓴이

It would be a big mistake to not write an article about this student who is a perfect example of a student spending her time well during this time. Her name is Anna Chang, an intelligent and hard-working student at our Korean School. Anna has been spending most of her time with her family during this quarantine. Anna has been a good daughter to her parents and a good sister for her brother, Josh. Just like most of the students, Anna has been learning online and preparing herself for AP exams which will take place this week. However, her stress soon disappeared



with smiles on her family members. Anna emphasized how she was thankful to spend a lot of time with her family during this period. Before the quarantine, all her family members were busy and ate dinner at different times, and Anna was disappointed by this fact. Nevertheless, Anna's

family now began to have family dinner together again, which brought more family talk and laughter on the dinner table. She was thankful that they can share their feelings together and get closer to one another. Her family would finish their day by watching Korean Dramas together. These days, people tend to watch alone with Netflix or other TV platforms but they watch their favorite Dramas together to interact and share hobbies together. Since last Sunday was Mother's Day, Anna's family had a Mother's Day celebration together. She made breakfast for the family to thank all the things her mother has done for the family. Anna told how her mother was happy and touched when they presented her mother's day gift. Anna

has been wisely spending her quarantine with spending more time with family, which they could not do before the quarantine.

보조교사 (이유정 선생님)

집콕 생활을 기쁘게 생각하는 유찬이의 하루

Chris' Daily Life in Quarantine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외출을 못하게 되고 각자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왔던 우리 학생들에게는 집콕 생활이 좋으면서도 몹시 어색합니다. 제 친구 유찬이에게 집콕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의 첫 대답은 자신있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시간을 더 보낼수 있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그럼 그의 기쁜 하루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유찬이는

매일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일단 학교 숙제를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니 컴퓨터로 모든 숙제부터 마무리합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숙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다음 트럼펫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매일 30분 정도 동네 주변을 뚫다고 합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주말외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 여유 시간이 생겨 매일 운동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찬이 가족 또한 이전보다 함께 많은 것들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경계령이 다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달란트가 많은 유찬이는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트럼펫 두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음악을 사랑하고 정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연습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후 밤 11시나 피곤하지 않을때는 12시까지 연습을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유찬이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피아노 콩쿨에서 1등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엄청나게 실력을 키우고 있는 유찬이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집콕 생활하면서 시간을 아깝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재능을 키워가는 유찬이는 참 슬기롭게,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글쓴이 강민희

The whole world is afraid and nervous because of the coronavirus, but I am grateful that my friends around me are doing well. After President Trump initially announced the unfortunate onset of quarantine and when the governor announced the cancellation of schools in our state, students who have spent a lot of time in school try to manage their time wisely. When I first asked my friend Chris about how he was doing, his answer was that he was happy to be able to spend more time doing what he wanted to do.



Chris wakes up every day at around 9:30 to 10, eats a simple breakfast, and starts school homework first. All classes are done online, so all homework is completed on the computer. Then, after lunch, he completes more homework and begins practicing trumpet. After that, he diligently runs around the neighborhood for about 30 minutes every day. Originally, when he was in school, he couldn't exercise as frequently because there was no time to. Also, as he runs, he sees many families walking together, and he says that he feels the love and value of his family while watching them. It was emphasized that Chris' family was also able to make memories by spending more things together than before, so he says that the boundaries quarantine are not all bad. Chris who is musically talented, is able to play both the trumpet and piano at a prestigious level. He loves music and has a passion, so he spends a lot more time practicing than other friends.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Chris practices until 11 at night or until he gets tired.

Everyone has the same time while living at home in quarantine, but Chris, who utilizes that time and develops his talents, is very satisfied and happy with how he is spending it.

Interviewer: Joelle Kang

태연이의 열공생활

Taeyeon's Study Life

약 일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뉴저지로 이사 온 제 친한 친구 태연이,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태연이는 누구보다 더 착하고 씩씩해서, 제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씩씩하게 미국으로 잘 적응했다시피, 그녀는 역시나 씩씩하게 코로나를 피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인지라,



태연이는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먼저 학업을 끝마친 다음, 부지런하게 SAT 공부를 하면서 아침을 보냅니다. 힘들게 공부한 다음, 스트레스도 풀고 바깥 공기도 쉴 겸, 초등학교부터 만지지 않은 분필로 집밖에서 그림도 그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태연이는 미국 환경에 적응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없게 달려온 지난 일 년, 여동생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만 있으면서 그동안 여동생이랑 보내지 못한 시간을 채워놓기 위해 동생이랑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동생이랑 시간을 보낸 후, 가족이랑 같이 드라마들을 즐겁게 보곤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가족이랑 특히 재미있게 보았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태연이는 집에 있는 동안, 하루를 홀로 공부로 힘들게 시작하지만, 하루의 끝은 가족이랑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글쓴이 신지은

About one year ago, my close friend Taeyeon moved to America from South Korea, and I still clearly remember the first day I met her. Even though I am her friend, I honor her as she is such a kind and courageous person. As she has courageously adapted to the American environment, she is, too, courageously spending her time at home, avoiding the coronavirus. As a student, Taeyeon studies the moment she wakes up. After she wakes up and finishes her schoolwork, she spends the rest of her morning, diligently studying for the SAT test. After studying hard, something special she did over the quarantine was going outside to relieve her stress and get some outside air.

When she went outside, she drew pictures with chalks she had not touched since elementary school. Additionally, since Taeyeon was busy adapting to the American environment and studying for school for the past year, she did not have time to spend time with her younger



sister; therefore, she spent time with her younger sister in order to fill up the time she has been unable to spend with her for the past year. As they played games and took pictures together, their sister relationship became stronger. After spending time with her sister, Taeyeon watched dramas with her family. Among the many dramas she and her family have watched together during this quarantine, her family especially enjoyed watching a drama called, "Reply 1988". Even though she laughed a lot while watching the drama, she, above it all, felt the warmth of family. While Taeyeon was at home, although she, alone, began her day by studying hard, by the end of the day, she spent her time in joy and happiness with her family.

Interviewer Juliana Shin



유빈이의 슬록 기자생활

Wise Quarantine Reporter, Youbin Park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열심히 실천하는 저의 이름은 박유빈입니다. 저는 사물놀이를 배우는 학생이자 한국 학교 프리 K 에서 봉사하고 있는 보조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는 저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학업을 위해 공부에 매진합니다. 학교 과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줌을 통해 선생님께 물어보고 관련영상을 찾아서 내용을 익힙니다. 과제들을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꼼꼼히 완료합니다. 학교 과제를 다 끝낸 후에는 학기중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합니다. 중학교때 이후로 치지 않았던 피아노도 치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구도 하면서 다음 배구 시즌을 위해 준비도 합니다. 요즘은 스터디 코리안에서 주최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의 기자가 되어 한글학교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인터뷰도 하며 얘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멋진 기사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참 의미있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루동안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날들이 역사가 될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저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글쓴이 박유빈

My name is Youbin Park and I am a student and an assistant teacher at a Korean school. I have been using my time wisely during this quarantine for myself. My daily life starts with doing school work just like any other student. Since it is an online school, I sometimes get a question on the concepts that I am learning. If I do not get

it fully, I would ask my teachers through zoom or search a video online to comprehend the concept fully and clearly. For my assignments, I will put in my best effort, double checking my work, until I believe that it is perfect to turn the work in. I would never wing any assignments. After I am done, I would do things that I could not do during the school days. I started playing the piano, which I stopped when I entered middle school, again. I also started to go outside and exercise more to keep my body in shape. I have played volleyball with my brother to prepare myself for the next volleyball season. Currently, I have been working as the reporter for the "Wise Stay-At-Home " project for Korean school and have interviewed and written articles about thirteen of my friends. I tried my best to interview people and talk to them about their lives during this pandemic. Then, I organized the interview and pictures to create an awesome article about each of them. I am thankful that quarantine gave me more time to spend with my family. My family started to do family worship, which we share how we felt today and pray together for this pandemic. To sum up, I am wisely spending my time preparing myself for next year and to get closer with my family.



Interviewer Youbin Park

“요즘 어떻게 지내?”

Reporter Youjin's Quarantine Life

2020년 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슬기로운 집콕 생활” 프로젝트 담당 기자로서 일하면서 저는 저 같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때로는 즐겁게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 계발에 힘을 쏟고, 어떤 학생들은 여유로운 침을 갖는 휴식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지, 또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기자 활동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면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기간동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에 기자로 참여하여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때 군함도의 실체를 알리는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군함도섬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군함도의 실체를 알리는 파워포인트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저 같은 평범한 학생도 한국 역사를 알리는 작은 역사학자 될 수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를 공부해서 한국 역사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글을 맺으면서 저는 이 곳에 올려진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코로나 시대를 견디어 낸 아이들의 귀한 역사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박유진

The COVID-19 crisis of 2020 will be remembered as a page in history because the crisis has changed everyone's lives through social distancing and quarantine. As an ordinary high school student going through this pandemic, I have acquired useful knowledge through these new experiences. One of the meaningful activities I accomplished was serving as a reporter for this "Wise Stay-at-home" challenge. At first, I started this project as a reporter to represent my school and help our school to win an award. However,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students at our school and inscribing reports, I got to learn how most of the teenagers, like me, have adapted to these new circumstances. Some people were utilizing this time to improve themselves in specific skills, while others were using this time to just relax and take a break from school life. Also, through interviews with my colleagues, I was able to comprehend that some were disappointed or worried due to this crisis since they were perturbed about their life after the pandemic. Thus, I was able to conclude that COVID-19 has both beneficial and negative effects on teenagers.

Also, during this quarantine, I have been working as a reporter for a project called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rrect Korean history that has been wrongly interpreted or understood by foreigners. Through this project, I was able to research the true history of Hashima island and learn about the forced Korean laborers. To allow people to be aware of this tragedy, I designed a PowerPoint and an educational video as my project. The project was a memorable experiment since I was able to realize that I, as a teenager, can do something to correct history.

Therefore, my experiences during this unusual time have really allowed me to learn and understand different ideas and knowledge.

Interviewer Youjin Park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유진이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Youjin is Living the Quarantine Life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봉쇄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유진이의 생활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유진이는 봉쇄령이 시작된 이후로 매일 시간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진이의 하루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이는 오전 8시에 일어나, 밖에서 줄넘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약 1500 개의 줄넘기를 합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전화를 확인한 후, 오후 12시에 학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를 어느정도 한 다음에 오후 2시쯤에 휴식을 취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진이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시 공부를 합니다. 모든 학업과 공부를 마치면 오후 6 시경에 다시 줄넘기를 합니다. 유진이는 줄넘기를 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줄넘기를 좋아하며 또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운동과 학업을 끝 마친 후, 유진이는 샤워와 식사로 머리를 식히면 여유를 갖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동안의 연습으로 쌓아온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습을 합니다. 사실

실력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유진이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것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9시 30 분부터 오전 12시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밤을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 유진이의 슬기로운 집콕생활이었습니다.



글쓴이 노종현

During this pandemic going on around the world, the lives of many have been altered. Ever since this lockdown that has been set in place, Youjin's routine has

been modified. Youjin has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flexibility ever since quarantine started. Let's take a look at his daily schedule. Youjin likes to wake up at 8 a.m and start his day off with some jump ropes outside. Youjin does around 1500 jump ropes before coming back in to eat a delicious breakfast alongside his family. After eating breakfast and looking through his phone, he begins his schoolwork at 12 p.m and takes a break around 2 p.m. He then likes to take an hour long break to relieve some stress. He'll do this by listening to music or watching some YouTube. Youjin then goes back to studying from 3 p.m to 5:30 p.m. When he finishes all his school work and studying, Youjin will go back out and jump rope some more at around 6 p.m. Youjin loves jump roping because he feels stronger and believes that doing this will help him grow even more. After all that exercising and work, he cools



off with a nice shower and meal. Later in the night, Youjin practices the violin to maintain his high level of skill but also because he loves the violin so much. Youjin likes to finish off the night by watching some k-drama from

9:30 p.m to 12 a.m. This is how Youjin spends his time during quarantine.

Interviewer Zachary No

자기계발 위해 힘쓰는 두원이

Duwon Spending His Quarantine to Improve Himself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함두원 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에 보조교사와 사물놀이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학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함두원 학생이야말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좋은 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함두원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고 알차게 보내 나가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자유시간은



취미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취미생활로는 게임, 종이접기, 독서, 또는 스도쿠 퍼즐 같은 것으로 지루함을 달래고, 또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구경하는데 차량 사람들이 많이 없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가지 않으니 시간이 꽤 남아서 프로그래밍

동영상들을 더 많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동영상을 보면서 내년에 있을 로보틱 대회를 위해 준비합니다. 두원학생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은 저녁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족이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몇 안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토론하고 싶은 것들을 대화한다고 합니다. 함두원 학생은 처음에는 학교도 안가고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아쉽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두원 학생의 열정적이고 슬기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빈

I would like to introduce Duwon Ham, who is always positive and hardworking. He is a 10th-grader who is an assistant teacher and a student at our Korean school. Duwon, who is sincere and a good volunteer at our school is a good example of wise

Stay-At-Home. Duwon's life during the quarantine had been wise and filled with fun activities over the two months. More free time after the online school work allowed him to focus on his hobbies and study for his personal improvement. Some of his hobbies are playing games, origami, reading, and Sudoku puzzles, and they are surely enough to help with his boredom. Especially reading helps him acquire knowledge and learn new things about the world. Sometimes, he goes outside to ride his bike and tour around his town. As he travels around his neighborhood, he is surprised, but also scared at how empty it is. To add on, he uses his free time to search programming videos so that he can prepare for the Robotics competition that will be held next year. The most valuable time for him is dinner time. It is during dinner time that the family gathers together, talking to one another. Duwon's family would talk about their days, or debate about certain topics while eating. At first, Duwon loved the fact that he did not have to go to school and wake up late. But now, he is disappointed that he can not meet his friends and go outside, and he hopes that this period will end soon. I hope Duwon continues his wise and positive lifestyle during this period and I hope this period will end soon.



Interviewer Youbin Park

도현이의 즐거운 축구생활

Dohyun's joyful soccer life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김도현 학생은 코로나 기간동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비록 학교 과제가 조금 많아서 힘들다고 하지만 가족들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학교 온라인 과제를 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집안 일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의 수고를 조금이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를 도와 찹쌀 도너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는 도너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축구장에 가서 축구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김도현 학생은 이번 코로나 기간동안 축구 실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대표팀에 들어가서 선발로 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팅연습과 체력단련을 위해 축구장을 6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괜찮아지면 여름축구 리그를 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하면서 부자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와 축구를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동안 시간이 많아서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와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상을 챙겨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김도현 학생이 이 기간동안 계속 이렇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One of the students at KSSNJ, Dohyun Kim, is spending his quarantine well with his family. Although the schoolwork is a bit overwhelming for him, he mentioned that the quarantine has made him closer with his family. During the day, he usually does

his school assignments, then he helps his mom with chores. He said that the quarantine has allowed him to understand his mom's hard work at home. He usually helps his mom with cooking as she loves to bake and cook different foods. During the quarantine, Dohyun said that he made sweet rice doughnuts with his mom. Also, Dohyun is using this time to improve his soccer skill to prepare for the upcoming season. With his dad, he goes to the public soccer field everyday to practice and improve his skill. He mentioned that he wants to get better so that he can enter the varsity for his school soccer team and play as a starter. He also runs around the soccer field 6 times to improve his stamina and endurance for the matches. He is hoping that he can play in the summer league if the situation gets better. He also said that by playing soccer with his dad, he was able to get closer with his dad. He now feels more comfortable with his dad as he spends most of the time with him now. Lastly, he replied that he enjoys quarantine overall because he can get more sleep and have more free time. He usually watches Youtube videos, including videos of Messi and Son, his favorite soccer players. I hope that Dohyun continues to spend his time at home well with his family.

야구를 좋아하는 은환이의 생활

Emmanuel's baseball-loving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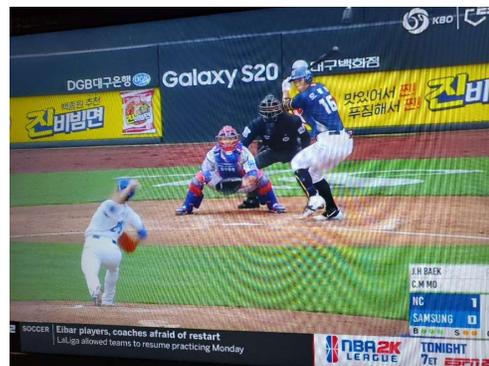
슬기로운 생활의 좋은 예로 김은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김은환 학생은 현재 11학년으로 저희 한글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학교가 9월까지 단음으로 빨리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환이는 한국



갈 생각에 들떠있네요. 가장 하고 싶은 것은 10개월 동안 못 봤던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같이 놀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번주에 있는 AP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4개의 AP 클래스를 듣고 있어서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있고, 1년 동안 배운 수업 내용들도 복습하느라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비록 집에서 보는 AP 시험이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지칠 때면 티비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보기 좋아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야구를 중계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KBO가 중계되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중계를 안 할 때는,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도 찾아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도 본다고 합니다. 가끔은, 몸 건강을 위해,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한다고 합니다. 김은환 학생이 AP 시험 잘 보고 한국에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글쓴이 박유빈

A great example of wise stay-at-home life would be the life of Emmanuel Kim, an 11th-grade student who is currently working as an assistant teacher for the Korean School. He is a foreign student from Korea and now that school is closed until September, he is getting ready to go back to Korea. Emmanuel noted that he is excited to go and see his families that he couldn't see for almost 10 months. Although he has to quarantine himself for 2 weeks when he goes to Korea, he is hyped to reunite with his family. Meanwhile, before he leaves, he needs to prepare for the AP tests that will take place this week. Since he takes 4 AP classes, he has less homework to do, but he is focused on studying for online AP tests. He is busy with solving practice problems and reviewing over materials that he learned over the years. He feels that although it is the at-home AP test, he must study hard to get the best results. When he gets tired of studying, he usually watches TV to relieve his stress. Emmanuel is especially excited about watching KBO on American television and is rooting for his team, Doosan



Bears. When the baseball is not on TV, he watches highlights of the match on Youtube and watches Korean Youtubers to entertain himself. Sometimes, he goes outside to keep his body healthy. He plays soccer to get his strength ready for the next tennis season. I hope Emmanuel does well on his AP test and hope he has a safe trip to Korea!

Interviewer Youbin Park

인턴교사

박주원의 반복되는 생활

Juwon's repetitive life



집콕생활은 지루함과 반복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주원 학생은 하루를 의미있고 특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학교 휴교를 통보 받았을때, 박주원 학생은 듣자마자 이 기간동안 뭘 해야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해보지 못하던걸 해볼까 생각하던차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에서 보고 배울때 요령을 잘 몰라 손끝도 아팠지만 참고 계속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코드를 짤수 있고 요즘에는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를 계속 연습해서

교회 찬양팀을 인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박주원 학생은 또한 밖에 나가서 동생들과 놀아준다고 합니다. 집의 차남으로서 아직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과 축구 또는 뛰어다니면서 같이 놀아준다고 합니다. 비록 어떨때는 집에 있고 싶지만 형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놀아준다고 합니다.

박주원 학생은 12학년으로서 학교 휴교 소식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졸업식과 12학년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주원 학생은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진

The quarantine life may be boring and monotonous to most of us since life at home is like a routine, and nothing special happens.

However, Juwon Park, a 12th-grade student at KSSNJ, tries to keep his days amusing and unique. Juwon mentioned that when the school closure marked the first day of the quarantine, he immediately started to think about the activities which he did not get to do during the school days. So Juwon decided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by watching YouTube videos. He mentioned that when he first learned how to play guitar, 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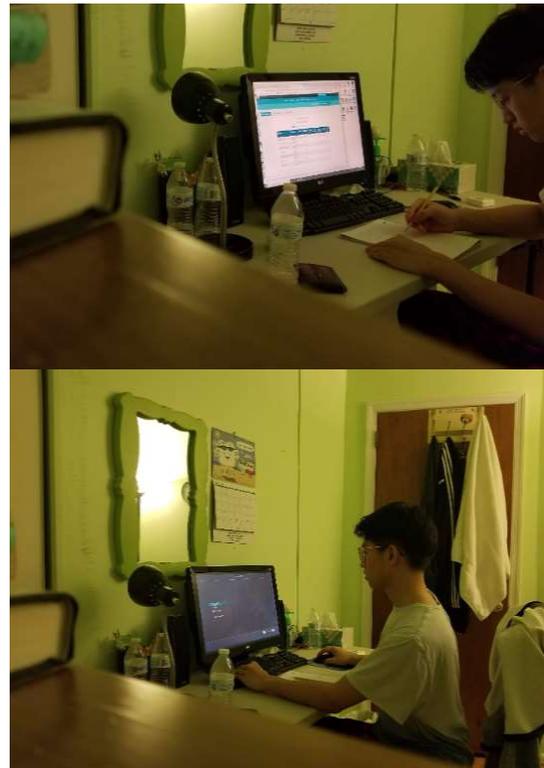
fingertips ached, and he had trouble stretching his fingers. However, as he practiced every day for the past 2 months, he can now play almost all the chords. He said he wants to master guitar before he goes off the college so that he can play any songs on the guitar. He is looking forward to playing for his church worship team as he is passionate about serving his church. In addition to that, he goes outside, usually in the afternoon to play with his younger siblings. As the second oldest child, he feels that he needs to be responsible for his two younger brothers, who are still in middle and elementary school. Therefore, as a friendly older brother, he goes to his backyard to play soccer and run around with his brothers. As a senior, Juwon feels disappointed that he cannot experience the senior year and graduation. So, he hopes that the virus dies out soon. Cheer up, Juwon!

Interviewer Youjin Park

워라벨이 무엇이나구요?

Worabal Work-and-Life Balance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워라벨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벨이란 일과 쉼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남부뉴저지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준용 워라벨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보니 학교에서의 모범생 이미지가 여유있는 학생의 이미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성실하게 학교에서 내주는 온라인 과제도 하고 학교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비록 학교에 가지못해서 하나뿐인 졸업도 못해서 아쉽지만 집에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12년동안 쌓여온 학업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보통 숙제가 끝난 오후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하 롤) 를 한다고 합니다. 롤에서 순위가 높기 때문에 게임할때는 숙제를 할때 처럼 집중해서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쉼과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준용 학생은 워라벨을 지켜가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준용 학생이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글쓴이 박유진

Many people believe that an idea lifestyle during quarantine is maintaining work-and-life balance. This means that one needs to manage his time well to even out the time for working and resting. A 12th grader student at KSSNJ, Joonyong Shin

is following that lifestyle during his time at home. Joonyong mentioned that with more time given at home due to quarantine, he has altered his schedule to lead a relaxing life. He has also changed his identity from a model student to a relaxed student as he did not have to attend school anymore. As a result, at home Joonyong has been mostly spending his time doing homework and playing videogames on his computer. Joonyong stated that in the morning, he usually does his online schoolworks. Although the teachers do not assign challenging works, Joonyong diligently finishes his assignments and puts thoughtful efforts into the remote learning tasks. Joonyong certainly misses school since he missed his chance to experience his last year at high school. However, he also feels thankful for this time at home as he thinks that this time is certainly relieving all the stress, he received from school for past 12 years. After he completes his homework for the day, he logs onto his computer to play videogames. Joonyong loves to play League of Legends, one of the most popular e-sports game in the world. He mentioned that his tier in the game is ranked high, so he focuses on every game as if were doing his homework. At the same time, he receives comfort from playing games as he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related to online school. To conclude, it is evident that Joonyong, a senior at KSSNJ, is leading a work-and-life balanced day by earnestly doing his homework and recharging through video games.

Interviewer Youjin Park

소중한 기억들을 만든 시간

Unforgettable Memories



저희 학교 윤도영 학생은 지난 2달 동안 슬기롭고 알찬 집콕 생활을 보냈습니다. 비록 다른 학생들과 생활 패턴은 비슷했으나, 자기만의 취미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리입니다. 윤도영군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치찌개, 샌드위치, 월남 쌀국수, 돈까스, 라면, 초밥, 부대찌개 등을 만들었으며 더 많은 음식들을 가족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뿌듯해 할 때는 가족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라고 합니다. 다른 활동은 정원 가꾸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 모두가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음으로 인해, 다 같이 관리가 소홀했던 마당을 가꿨습니다. 잡초도 뽑고, 관리를 한 결과 더 깨끗해 졌고, 가족들과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던 도중 포이즌 아이비에 걸려 의사랑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다고 합니다. 비록 다가오는 에이피 시험을 봐야하지만 윤도영 학생은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가는 윤도영 학생, 그는 지금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글쓴이 박유빈

As I interviewed Steve, he had an interesting quarantine life for the past 2 months. Although he spent his days similar to other students, there were definitely unique



activities that he did. One of the activities that he did was cooking for his family which he loves to do. He had so far cooked Kimchi stew, chicken sandwich, pho, don-katsu, Ramen, sushi, and Army stew. He said that he felt proud and happy when his whole family enjoyed the meals that he cooked. Another thing that he did was gardening the backyard. Since the quarantine gave more free time to his whole family, they decided to clean up their backyards that had been a mess for a while. He said that it got much cleaner now and he loved doing it with his brothers and dad as it

became a family bonding time. Unfortunately, he got poison ivy during the gardening and he had to facetime the doctor to get a diagnosis and be treated. Steve was afraid to go to the hospital so he chose facetime instead. Although it did not feel the same as confronting the doctor in real life, he said facetime with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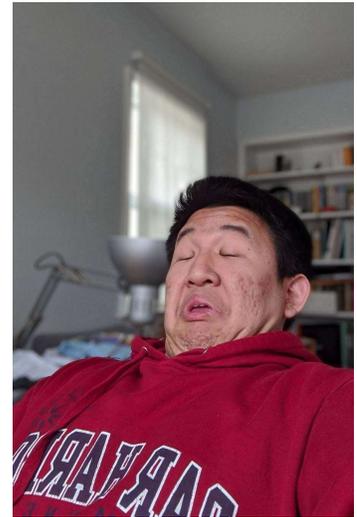
doctor helped him a lot. Other than that, he said that he loved his quarantine. Although he had to study for upcoming AP tests, Steve loved playing games, cooking, and most importantly, spending time with his family. Steve is going to college next year, so he hopes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during this time.

Interviewer Youbin Park

요색남 이로운의 슬기로운 셰프생활

Roawoon's Wise Chef Life

저희 학교의 재학 중인 12학년, 이로운 학생은 이름처럼 이롭고 지혜로운 집콕생활을 보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 입시도 끝나서 다른 고등학생 보다는 비교적 걱정도 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에도 열심을 다하지만, 자기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서 생활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취미는 요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드 치킨, 타코, 나초, 아보카도 토스트, 짜장면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음식들을 AP 시험 끝나면 더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재료들의 비율을 맞추어 나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취미는 철학 책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가장 재밌는 활동이 밖에 나가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등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식에 관하여 읽고 생각하며,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맞는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로운 학생은 철학 책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렌즈로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끝 마치면서, 학교 가는 것이 그립다고 합니다. 12학년으로 고등학교의 끝인 졸업식과 12학년 인턴쉽들을 못 하게 되어 아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이로운 학생! 앞으로도 이로운 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글쓴이 박유빈



Roawoon, current senior in our Korean school seems to be enjoying and spending his time wisely during this quarantine. Since he is a senior and has already committed to college, he seemed to have less stress and concerns with the school work than other high schoolers that have answered the interview. Instead, he has been using his time wisely for his hobbies and

things that he could never have done during the school year due to his busy schedule. One of the activities that he started was cooking. He has cooked fried chicken, tacos, nachos, avocado toast, and black bean noodles so far and he hopes to cook more in the future, now that AP test is soon over. He said he enjoyed learning new recipes for new food and learning how to balance the ingredients to make the best food for himself and his family. However, the most interesting hobby was reading philosophy books. He would sit outside and read well-known philosophers' books including Diogenes, Descartes, Plato, and Socrates to re-think the world and his beliefs. He has been recently focusing on the knowledge and the validity of knowledge that we learn from school and from the world. He suggested that reading philosophical books really helps in seeing the world with new lenses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ose books are valuable. He ended the interview with how he misses school and all those fun activities that only seniors get a chance. He especially misses the graduation ceremony and senior internship that was supposed to take place if school continued. At the same time, he thinks life at home is not that bad either as he can cook or read philosophical books during this time. I hope Roawoon continues his wise and meaningful life during this period.



Interviewer Youbin Park